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사랑 전달하자”

지난 4일 한국 강원, 고성, 속초, 동해, 강릉, 인제 등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산불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남가주에서 기금을 모아 전달하기로 했다.

남가주 교계가 주축으로 이뤄진 '강원재난피해 미주 연합후원회'(이하 연합후원회)는 지난 11일 엘에이 JJ그랜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 피해에 대해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남가주 교계와 사회 일반 단체들과 교민들이 하나가 되어 강원재난 피해를 돕기 위한 연합체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산불의 피해면적이 1757ha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는 주택 401여채, 축산시설, 925개, 그리고 7개의 학교가 소실된 것이다. 연합후원회는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가 총회장으로 이끌게 되고, 추진위원장에 이병만(평창미주후원회 대표회장),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에 최광철(KAPAC), 김영구 목사(대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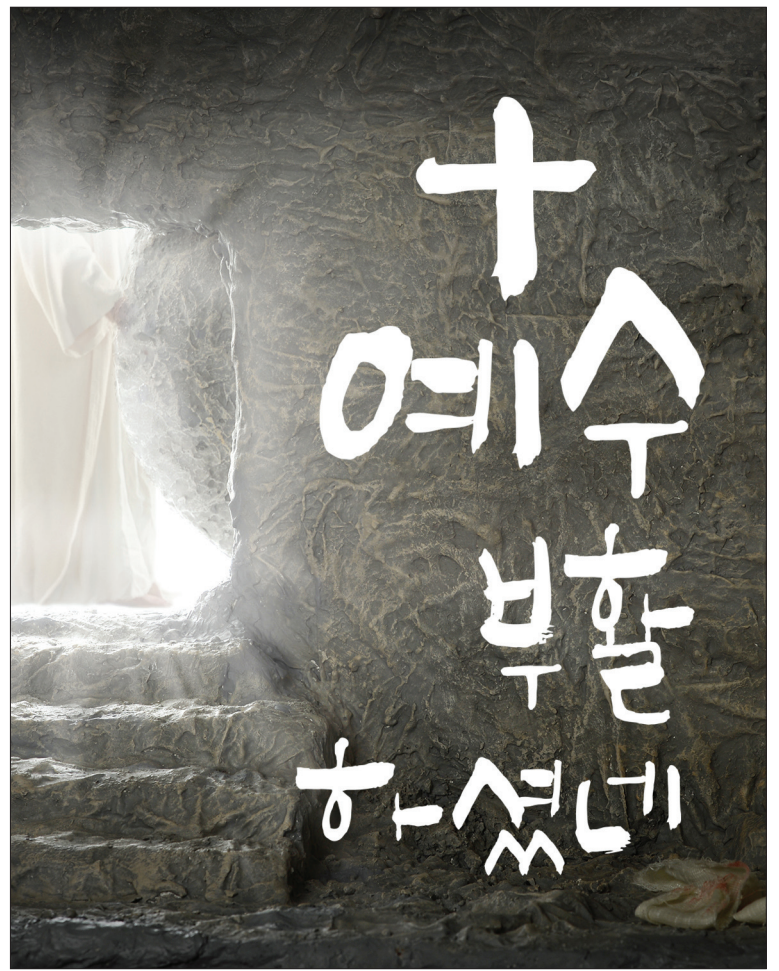
국역사지킴이 운동본부대표), 추진위원회 대변인에 이병도(팔도연합회장) 등이 참석하는 등 보수, 진보를 넘어서 남가주의 단체들이 협력해서 이재민들을 돕기로 팔을 걷고 나섰다. 또한 최대영 장로(미주한인재단 LA이사), 박희준(미주한인재단 LA차세대위원장/회계사) 씨가 회계를 맡아서 투명한 모금 및 기금 전달을 할 것으로 후원회 측은 약속했다.

연합후원회는 모아지는 모든 기금은 100% 이재민들에게 전달이 되도록 할 것이고, 교통비 운영비 등은 자비 및 도네이션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 목소리를 경험해서 실질적으로 강원도 이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심해서 기금이 쓰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기홍 목사는 “고국의 어려움을 무시할 수 없어서 교계와 일반 단체들이 연합하게 되었다. 이재민들이 아직 도움의 손길을 못 받고 있다

고 들었다”라면서 “그런 면에서 연합회가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강원도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에 진보, 보수의 각 단체가 연합하게 되었는데,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모금 일시는 4월 11일부터 5월 18일까지이며, 가두모금을 오는 4월 20일(토), 4월 27일(토), 5월 4일(토) 등 엘에이와 OC 지역 마켓 및 상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모금 시 PAY TO THE ORDER((Kangwon-kwds)로 하면 되며, 은행은뱅크 오프 호프, 어카운트 넘버는 6400-271-931이다. 모금을 메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kangwon disaster relief support of Korean American, 6742 Sepulveda Bl. Vannuys CA 91411로 보내면 된다. 넌프로핏 구좌라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연합후원회는 밝혔다. 문의) 818-943-1830(최대용 회계담당) 678-538-7777(이병만 추진위원장). 토마스 맹 기자



지난 4일 한국 강원 고성 속초 동해 강릉 인제 등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산불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남가주에서 기금을 모아 전달하기로 했다.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연합후원회 총회장 한기홍 목사.



[社告] 목회자 프로필 사진 무료 촬영

기독일보 신문사가 사무실을 이전하여, 여러 어려움 속에서 이민목회를 하시며 한인들을 돌보고 계신 목회자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작은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으신 멋진 모습을 어디든 자신 있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멋진 프로필 사진을 스캇김스튜디오(scottkimstudio.com)를 운영하고 있는 사진작가

스캇 김 씨가 무료로 촬영해 드립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신학생 모두 환영합니다. 전화로 예약하시면 촬영 가능합니다. 일시는 오는 5월 1일(수)부터 3일(금)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장소는 기독일보 사무실입니다. 문의 및 예약은 기독일보 (213-739-0403, 213-434-1170)로 하시면 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내 처형·고문 아직도 빈번”

유엔 인권이사회가 다음달 열리는 보편적 정례검토를 앞두고 북한 인권보고서와 함께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공개했다. 16일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유엔 이사회는 북한 [2면에 이어서 계속]

번역/공증/파산
생활법률 속성해결사
법무사~
 EG Global LDA Service
 * 학교설립/인가 전문
 -연방정부 SEVIS 유학비자 신청
 -신학/경영대학, 사립초중고교, 홈스쿨링, 유치원
 *교역자 누구나, 신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213) 999-4379 info@wpaus.com
 3407 W 6th St. #614 LA/LDA:2018047569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이니라
 ■ 주일예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일예배 : 오후 5:30
 ■ 금요일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 (213)364-7289, (213)605-1983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3]
2019. 4.21(주일) 새벽 5:30
선한목자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주치/LA동부지역교역자협의회
 회장/신용환목사 부회장/최준우목사 총무/박진석목사



(왼쪽 두번째부터) 로라 전 회장, 박승규 이사, 강태광 목사

재외한인구조단 - LA한인회 업무 협약, 이민자들 돕는다

지난 4월 13일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에서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와 사단법인 재외 한인 구조단의 업무 협약식이 있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로라 전 회장과 재외 한인 구조단의 박승규 이사가 업무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로스앤젤레스는 물론 남가주에서 자립 능력이 없이 어려움에 처한 한인들에게 한국으로 귀국을 돕고 고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재외 한인구조단의 구조활동에 로스앤젤레스 한인회가 긴밀하게 협조하

기로 하였다. 오랜 외교관 생활에 이어서 재외 한인구조단을 통한 재외 한인 구조라는 새로운 일에 봉사하는 박승규 이사는 "세계 도처에 신분, 경제적 상황 혹은 건강의 이유로 절망에 봉착한 한인들의 귀국과 재활을 돕는 것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한인들이 세계 속에서 잘 살고 있지만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로라 전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장은 "이런 의미 있고 귀한 일에 우리 한인회가 동참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도움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협력하겠습니다." 답변하였다. 한편 고통을 당하는 재외 한인들의 귀국을 돕고, 한국에서 그들의 재활을 돕는 재외한인구조단(총괄단장 권태일 목사)은 월드쉐어의 자매 NGO단체로서 재외한인구조단에 관한 문의는 월드쉐어USA (대표 강태광 목사, 323 578 7933)에 하면 된다.

[1면 '유엔 인권' 에 이어서 계속] 인권보고서를 통해 기본권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특정 계층의 권리 등으로 항목을 나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특별감사관 보고서를 통해 "북한 내 처형과 고문이 아직도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이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 수감자들의 행방을 가족들도 알

지 못한다며 즉시 수용소를 폐쇄하고 수감자들을 조건없이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또 북한 내 사상, 표현,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으며 국가가 정한 사회적 계급, 성별, 장애에 근거한 차별이 만연하다고 강조했다. 출생 신분에 따라 교육, 의료, 근로 등의 기회가 차별될 뿐 아니라 공무원들의 뇌물 문제도 널리 퍼져 있다고 퍼져있다고 지적했다. 강혜진 기자

월드미션대학, 봄 페스티벌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박지범 목사, 박종술 목사 워십 콘서트 및 다양한 공개강의



월드미션대학교가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봄 페스티벌을 연다.

굿네이버스, 한 생명 살리기 고난주간 캠페인

"최빈국의 어린이들 하루 한끼도 먹지 못하는 식량난"



굿네이버스 미국법인(회장 이일하)은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고난주간을 맞아 한 생명 살리기 고난주간 금식운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

다. 고난주간 금식운동은 고난 주간 동안 하루 한끼 이상을 금식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의 기쁜 소식과 후원금을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아동들에게 전하는 캠페인이다. UN에서 2018년 발표한 식량 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북동부의 3천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 참여 신청을 받기 위해 미주지역 4,000여개 교회에 최수중 굿네이버스 친선대사의 편지가 발송되었으며 캠페인 참여 신청을 한 교회와 단체에 고난주간 동안 교회의 성도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보고 묵상할 수 있는 영상이 담긴 USB를 발송한다. 굿네이버스는 아프리카 최빈국

12개 국가 어린이들의 성장과 교육을 위해 지원하며 지역의 자립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개발 사업 및 소득증대 사업 등에 힘쓰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인 후원금은 아프리카의 모잠비크나 니제르의 어린이들에게 음식 및 식수를 지원하는 일에 사용될 예정이다. 굿네이버스 김재학 본부장은 "굿네이버스가 일하고 있는 아프리카 차드, 니제르, 모잠비크 등 같은 최빈국의 어린이들은 하루 한끼도 먹지 못하고 깨끗한 물조차 마시지도 못하고 있다. 올해 고난주간에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묵상하며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많은 교회와 단체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라고 했다. 문의) 213-447-9898(김재학 본부장)

올해로 개교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에 다가가고 있는 월드미션대학교(https://www.wmu.edu/)가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OC캠퍼스와 LA캠퍼스에서 봄 페스티벌을 연다. OC캠퍼스에서는 4.22(월)에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송경화 교수가 "결혼과 가정 상담: 부모-자녀 갈등 상담"을 주제로 공개강의를 이끈다. LA캠퍼스에서는 4.23(화) 오후 6시부터 10시 30분까지 장터, 워십 콘서트, 공개강의 등이 열린다. 화요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학과별 축제 장터에 이어, 7시 30분에는 남미워십 LAMP 박지범 목사의 워십콘서트가 열린다. 이후 8

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는 구약 개론 (포로 후기 문학들: 조내연 교수), 성경 교수법 (소그룹과 성경 교수법: 남종성 교수), 소그룹과 제자 훈련 (소그룹의 단계와 전략: 강일준 교수), 찬양과 경배 (다윗의 열쇠: 정종원 교수) 공개 강의를 진행한다. 목요일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순 무브먼트 박종술 목사가 워십 콘서트를 열며,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교회사 (칼빈의 제네바 개혁과 이민사회: 송인서 교수), 비교 문화 상담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 박숙경 교수), 상담이론과 기술 (내면 가족체계 - IFS 상담: 송경화 교수), 성경 개관 (로마서: 송운철 교수) 공개 강의를 열린다.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213)531-7215, (909)993-3028

“예수 부활 하셨네” 하나님의 아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감사한인교회 THANKSGIVING CHURCH

2019년 5월 9일(목)~12일(주일) 집회시간 새벽 저녁 주일 박효진 장로 초청 부흥성회



치노 지역 동부사랑의교회 EM청년들이 주관하여 7년째 진행하고 있는 타이거 유스 사커(Tiger Youth Soccer)가 이번 4월 30일부터 5주동안 진행된다.

“축구로 전하는 예수님 사랑”

치노 커뮤니티를 섬기는 동부사랑의교회 타이거 유스 사커

치노 지역 동부사랑의교회 EM청년들이 주관하여 7년째 진행하고 있는 타이거 유스 사커(Tiger Youth Soccer)가 이번 4월 30일부터 5주동안 진행된다.

올해로 7년째 타이거 유스 사커 프로그램은 주중(화, 수 저녁)과 토요일 오전에 연습 및 시합을 하기 위하여 모인다. 교회 인근 Villa Park(13513 3rd St, Chino, CA 91710)에서 실시되며, 현재까지 치노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60명 등록하였고, 코치는 12명이 모였다. 축구팀은 6개 팀으로 구성되며, 6살부터 11살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준비한다.

타이거 유스 사커를 담당하고 있는 박충권 집사는 “교회의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커뮤니티와의 접촉점을 찾아 지속적으로 섬겨야 한다. 한인 교회가 커뮤니티와 타인종

을 섬기는 것도 선교의 중요한 영역이다. 이 지역사회를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7년동안 타이거 유스 사커를 통해 타인종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다가갔다. 스포츠를 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어나 신체적인 장애로 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도 참석한다. 단지 축구라는 스포츠를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코치들은 어린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동부사랑의교회는 참가비를 20불에 어린이들 유니폼과, 사진, 코치비용, 트로피와 개인 축구 양말을 지원하며 타인종 커뮤니티 친구들이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5주동안 10번의 훈련과 경기를 통해 훈련된 코치들은 어린이들을 사랑

하고 섬기며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 폐막식에서는 모든 가족들을 초대해 매해 200-300명 정도를 모시고 각 팀들을 소개하고 트로피를 주며 축복과 격려의 말을 전한다. 이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인 이 세레모니에서는 복음을 전한다. 이 행사로 VBS에 대해 타인종 어린이를 초대하고 있는 동부사랑의교회는 앞으로도 더욱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박충권 집사는 “한인교회가 어떻게 커뮤니티를 섬길 수 있는지 궁금한 이들에게 이 사역의 노후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대한 문의는 tigeryouthsoccer@gmail.com 혹은 웹사이트(tigeryouthsoccer.com)를 통해할 수 있다.

소망 소사이어티

치매전문간병인 교육 성황리 마쳐



'치매 전문 간병인 교육'이 13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인 사회에 치매 관련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는 소망 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가 주최하는 “치매 전문 간병인 교육”이 4월 13일(토), 오전 9시 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동안 소망 소사이어티 LA 지부 사무실(3030w Olympic Blvd #217)에

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임상사회복지사(License Clinical Social Worker)이며 “The National Council of Certified Dementia Practitioners”의 강사이기도 한 에린 김(MSW, CDP, CADDCT)씨가 강사로 나선 이번 교육과정은 소망 소사

이어 홍보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치매의 ‘진단’, ‘치료’, ‘예후’ 등 치매의 거시적인 내용이 소개 되었다. 오후 세션은 오렌지 카운티 “소망케어교실(치매 환자 돌봄 교실)” 동영상을 통해 구체적인 돌봄의 현장을 시청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실제적이고 심화된 교육으로 ‘우울증’, ‘반복적 행동’, ‘편집증’, ‘환각’, ‘방향’, ‘쟁여놓기’, ‘공격적 행동’, ‘영양’, ‘개인 위생과 관리’, ‘문화의 이해’ 등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었다. 교육 후에는 유분자 이사장이 참석해 교육생 한명 한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교육생을 격려했다. 또한 에린 김씨는 열정적이고 재미있는 강의로 모든 교육생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번 감사행사에서는 '임마누엘라'라는 이름의 소녀 돕기 캠페인이 진행된다.

월드쉐어 15주년 감사행사 찬양예배로 진행한다

25일 아로마 월서센터에서, '임마누엘라' 돕기 캠페인

월드쉐어(권태일 목사 설립)가 창립 15주년을 맞아 사무실 이전 감사행사를 오는 25일 오후 5시 아로마 월서센터 5층 대연회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감사행사에서는 찬양예배와 축하행사, 그리고 만찬이 준비되며, '임마누엘라'라는 이름의 소녀 돕기 캠페인이 진행된다. 팜플렛 광고 수입 및 감사예배 시 모아지는 현금 등 모든 수익금을 임마누엘라를 돕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월드쉐어는 밝혔다.

월드쉐어에 따르면 '임마누엘라'는 아이티 쓰레기 마을에 살고 있는 생후 6개월의 아들로 선전성 후귀 질환을 앓고 있다. 위와 연결된 장이 너무 협착하여 음식을 토하고 있다. 아이티 월드쉐어 김영숙 지부장이 특수 분유와 한국 약품으로도 온 결과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위급한 상황이다. 캠페인을 통한 수익금은 수술비와 소녀의 생활환경 개선을 돕는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아 저개발 국가에 식수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식수개신 사업, 말라리아, 에이즈와 같은 질병에 의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의료보존 프로그램, 부모를 잃은 어린이들의 생계와 교육을 위한 고아그림 홈 설립, 지원 및 결연아동후원 지구촌 나눔 정신의 확산과 청년 비전을 위한 해외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05년 쓰나미 피해지역인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인도를 시작으로 2008년 미얀마의 사이클론, 중국의 쓰촨성, 아이티 지진피해, 2013년 필리핀 태풍피해, 2014년 원난성 지진피해지역 구조활동, 2018년 과테말라 화산사태, 인도네시아 쓰나미 사태 구호활동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구호팀을 파견하였다. 의료지원, 구호사업, 지역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월드쉐어는 구호활동과 지역개발에 관련된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표준을 지키는 NGO로 알려졌다.

국제 없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사단법인 월드쉐어는 가난과 재난으로 고통 당하는 이들에게 민족, 인종, 종교를 초월하여 사랑을 전하고 있다. 월드쉐어는 현재 전세계 26개국에 고아들을 위한 그룹 홈과 1:1결연, 지역개발사업, 의료보존사업, 식수위생사업, 교육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외교통상부의 허가를 받은 NGO단체이다.

이 단체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전 세계 29개국에 3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정부 및 사업 담당자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현장에서 수혜자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현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월드쉐어 USA(대표 강태광 목사)는 2004년에 LA에서 활동을 시작한 이래 부침이 많았다고 한다. 격오지와 구조의 현장 활동을 중요시하는 월드쉐어의 기본 방향 때문에 LA활동을 집중하지 못한 것이 이유라는 것.

이제 중견 국제 구호 NGO로 성장한 월드쉐어가 월드쉐어 USA를 통해서 더욱 활발한 구호활동을 중남미에서 펼쳐나갈 계획이다. 월드쉐어 USA는 소속자 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미혼모와 그 자녀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타일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운전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7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달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돌리십시오 로세르~

당신의 마지막 카드
17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JESUS IS THE ANSWER



신승훈 담임목사

- 예배안내**
-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0:30
 - 3부예배 오후 1:00
 - 라티노 오후 6:30
 - GCEM 오후 1:00
 -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예수 부활하셨네!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108>

북아프리카 튀니지 종족셀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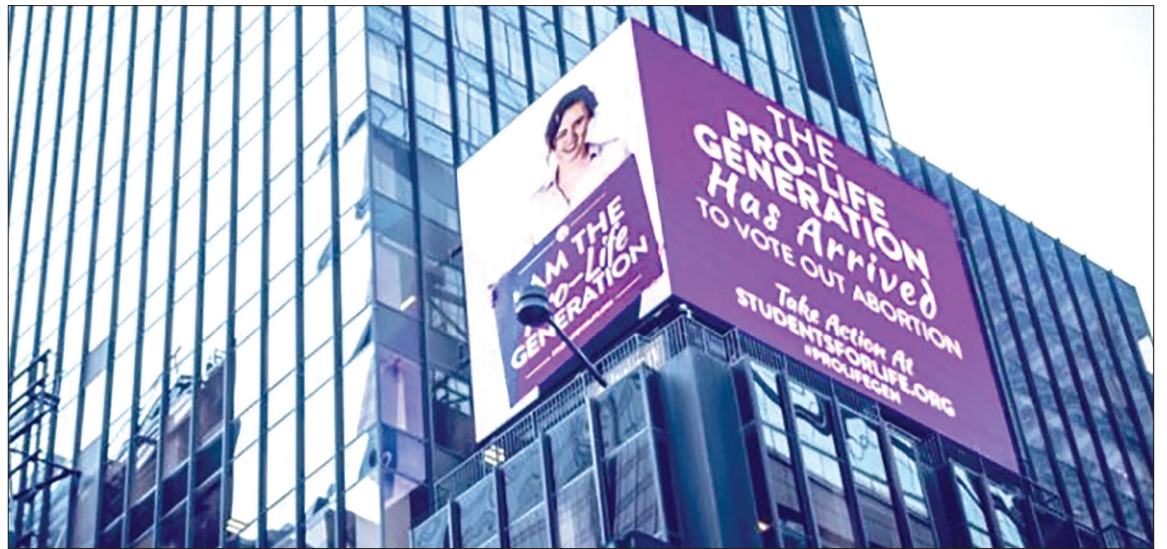
북아프리카의 끝자락에서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유럽을 향해 나란히 붙은 다섯 나라가 있다. 모리타니, 모로코, 알제리, 리비아, 그리고 튀니지다. 이 다섯 나라를 마그레프장이라 부른다. 이번 주에 비전스쿨 강사로 튀니지에서 5년간 장기사역하고 있는 임주에 선교사가 방문했다. 두 내외와 세 아이가 미국 시애틀 교회의 파송을 받아 튀니지로 가게 된 동기가 있다. 자스민 혁명으로 아랍의 봄을 일으킨 나라가 튀니지이다. 그 튀니지의 청년들이 대거 그 당시 출범했던 IS에 가입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서이다. 그 땅의 청년들이 찾아야 할 분은 참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었다. 튀니지는 일찍이 AD 3세기 교역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었고 당시 튀니지의 초기교회들은 거센 핍박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며 순교자들을 배출한 나라였다. 성어거스틴과 성 테롤리안 등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있었던 나라다. AD 397년에는 카르타고 공의회를 열어 우리의 신약성경 27권을 정경화 시키며 기독교 문화의 꽃을 피웠던 땅이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는 잘 몰랐다. 그 사건에 하나님 이 개입하고 계신 것을. 하나님 이 쫓겨 있어 있었던 아랍의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고 계셨다는 것을. 그 난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영혼은 복음을 스폰지처럼 빨아 들였다. 왜일까? 그들은 이슬람 정권에 희망을 잃었다. 더이상 이슬람이 그들의 소망이 될 수 없었다.

그들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그들의 영혼들이 서서히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튀니지 헌법이 개정되었다. 이슬람 나라 중 최초로 “개종의 자유”와 “개종자에 대한 박해 금지법”이 제정되었다. 지금 그 땅을 향해 주님의 청년들이 들어가고 있다. 자스민 혁명이 발발할 당시 기독교인을 찾기 힘들었던 그 땅에 불과 10년 만에 5만명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생겼다. 지난 1월 “마그레프어 부흥하라”라는 주제로 부흥집회가 튀니지의 수도에서 열렸다. 아프리카와 아랍인들 그리고 베르베르인들과 우리 한인청년들이 함께 모여 튀니지의 사도행전의 부흥을 회복시켜 달라고, 아프리카와 아랍의 부흥을 위해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집회의 마지막 폐회를 하려던 순간 대중 속에서 누군가가 “예수야”를 외쳤다. 하나 둘씩 “예수야”를 따라 외쳤다. 그 외침이 한시간 가량 계속 되었다. 그들 모두의 눈에서는 폭포수 같은 눈물이 흘렀다. 그렇게 그 땅에서 예수를 찾는 청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다음주에 계속)



Students for Life of America가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에 게재한 낙태 반대 광고. ©Students for Life of America

美 대학생 단체, 뉴욕 타임스퀘어에 ‘낙태 반대’ 광고

“뉴욕시 임신 후기 낙태는 ‘오늘날 인권 문제’”

미국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학생들로 구성된 단체가 맨하탄 타임스퀘어에 뉴욕시의 낙태 관련 정책을 비판하는 광고를 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Student for Life America(SFLA)’는 10일(이하 현지 시간) 뉴욕시에서 열린 행사에 맞춰 타임스퀘어에 이 광고를 했으며, 지난 12일부터 3일 동안 진행했다.

‘어둠에 빛을 비추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올해 초 임신 후기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뉴욕시에서 열렸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안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고, 미전역의 낙태 반대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SFLA의 크리스탄 호킨스(Kristan Hawkins) 대표는 성명

에서 “지지자들에게 타임스퀘어에 낙태를 반대하는 성명을 내는 것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좋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호킨스 대표는 이 광고가 게재되기까지 겪었던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녀는 “타임스퀘어에 이 같은 광고를 게재하기 위한 싸움이 있었다. 다른 업체들로부터 2번이나 광고를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폭력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도 대학 캠퍼스를 포기하지 않았고, 낙태를 반대하며 뉴욕시의 낙태 극단주의를 두려워하는 뉴욕 주민들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보내는 일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5초 분량의 이 광고에는 “난 플랜트 페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 미국 가족계획연맹)를 신

뢰하지 않습니다. 오늘, 플랜트 페어런트후드는 910명의 삶을 끝낼 것입니다”, “난 낙태 극단주의를 반대합니다”, “낙태 반대하는 세대들은 낙태 극단주의를 반대하는 투표를 위해 왔습니다”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약 15미터 높이의 화면에 3분마다 노출됐다.

SFLA 측은 적어도 수 천명의 사람들이 이 광고를 봤을 것으로 예상했다.

호킨스 대표는 “임신 후기 낙태 및 낙태 시술 도중의 유아 살해는 ‘오늘날 인권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낙태를 반대하는 세대들은 우리 중에서 가장 작은 이들을, 도움과 지지를 마땅히 필요한 어머니와 그들의 태아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 ‘아이 캔 온리 이매진’ 흥행 중 복음 전파로 이어져”



존 어윈 감독의 모습. ©페이스북

영화 ‘아이 캔 온리 이매진’(I Can Only Imagine) 제작을 맡은 존 어윈(Jon Erwin) 감독이 “미국에서 영화가 성공해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

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미국에서 개봉한 ‘아이 캔 온리 이매진’은 개봉 첫 주에 1,710만 달러(약 195억 원)의 수익을 벌어들였고 총 수입은 8,300만 달러(약 945억 원)였다. 이는 예상치를 훨씬 웃돈 기록으로 영

화는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해외 진출도 모색하게 되었다. 어윈 감독은 지난 달 NRB 컨벤션에서 열린 콘퍼런스에 참석해 “미국에서 영화가 잘 되면, 자동적으로 다양한 언어로 더빙되어 해외에 배급된다”면서 “이들 국가에서 여러분에게 번역 및 배급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고, 이를 통해 복음도 전하고 수익도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영화에 나타난 ‘머시미(MercyMe)’ 밴드의 리더 바트 밀라드(Bart Millard)의 삶을 통해 복음에 관해 듣고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국가들 중에는 중국도 포함돼 있었다. 현재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의 압수수색은 주로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이들이나 인권 운동가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지하교회나 정부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교회들도 대상이다. 강혜진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민규 이 사 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ats AITC정회원 ABHE ABHE정회원 TRACS정회원 CHEA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기독교 상담학 학사 및 석사 과정 TRACS 인준 축하

학위과정	다문화 철학박사(PhD in ICS) 선교학 박사(D.Miss)
	목회학 석사(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MA CE) 선교학 석사(MA ICS) 기독교 상담학 석사(MACC)
특혜	신학사(BA) 기독교 상담학 학사(BACC)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저렴한 교육비 다양한 학교 장학금 수여 English Track LA Extension Class 유학생 1-20 발급 연방정부 학비보조(Federal Student Aid)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석사과정까지 100% 온라인 수강 졸업 가능, 박사과정 50%) HD 시스템을 통한 고화질 온라인 강의 한인신학교 최초 온라인 "Live" 강의

미국의 뛰어난 복음주의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4월 한달 입학비 면제 이벤트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서는 부활절을 기념하여 4월 한 달간 입학정보 신청 및 온라인입학원서를 제출하시는 분에게 입학비 \$80을 면제해 드리는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LA 확장 강의 센터 운영
302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175)



2019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중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입학 문의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하늘문 열린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 3:7-13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요한계시록 3:7-13

지리적으로 빌라델비아는 터키 서남부에 있는 사테 교회에서 동남부로 100리쯤 떨어진 곳에 큰 산 중턱 아래쪽 평지에 BC150년 전에 필라델푸스라는 사람이 로마 원로원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한 도시였습니다. 전략적으로 골짜기마다 있는 도시의 중심지로 건설을 했고 포도와 목축업이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헬라 문명이 급속도로 파급되어 이 지역이 헬라 문명권으로 엄청난 문화 선진(先進)의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유대인들이 세력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유대교의 율법적 교리를 강조하면서 그곳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혀 왔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도 중에 누가 세웠는지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사도나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복음의 체계적인 교훈도 가르치기 어려웠을 것이지만 성령을 충만히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뜨거운 기도를 통하여 불같은 역사는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이미 유대교로 자리 잡고 있던 유대인들은 성령에 이끌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헛되고 잘못되었다고 핍박해 많은 순교자가 생겨났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7절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대하신 믿음의 사람이며 이스라엘 2대왕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이상적으로 잘 다스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예루살렘 성을 다윗을 통해 건립하셨습니다. 이 다윗은 구약시대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전권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맡기셨는데 그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목자이기도 했습니다.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절대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8절에 “볼찌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는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하늘나라가 개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7:55-60에서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의 영안을 뜨게 해주셔서 하늘 나라 문을 열어 그가 순교하면 맞아들이시기 위하여 보좌 우편에 일어서 계신 것

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늘나라 문이 열릴 때 구원 얻은 성도가 천국으로 직행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와 같이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모든 신도들의 믿음이 예수님 보시기에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이 온전히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 진리의 교훈을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고 그들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1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예수라는 말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을 배반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할지언정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8절에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라고 한 말은 어느 유능한 목사가 세워 가르친 교회가 아니라 어느 평신도에 의해 가꾸어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9절에는 유대교의 집단이 다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나라 사람들 중에도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도 덩달아 유대인 행세를 하려고 했던 사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늘소망 가꾸자고 믿음 생활하는 때 순간마다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을 불꽃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신 예수님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건전한 생각과 충성스러운 생활 신앙으로 예수님 앞에 책망이 아니라 기대와 신뢰를 모을 수 있도록 진실한 신앙 인격자로 믿음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사는 것을 보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로 알게 하시겠다고 본문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정절을 지켰을 때 승리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는 하나님이시며 육으로는 사람과 같은 분이셔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셔서 고난과 멸시를 당하고 죽임당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이 한마디는 그리스도로서의 소임을 완성하셨다는 선언이었습니다. 10절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가는 길에서 어떠한 환란과 핍박, 죽음이 오더라도 변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어 있는데 이때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지고, 변

절자도 생겨나고, 믿음이 없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기도 할 것이라고 다니엘서, 에스겔, 스가랴, 데살로니가후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천국에 갈 믿음을 가졌고 면류관 또한 받을 상태이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둥은 그 건물을 받히고 있는 것으로 가볍게 빼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기둥은 빌라델비아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도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인과 새 예루살렘(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보배로운 주인공이 되게 하는 사인, 예수님의 새 이름인 만왕의 왕의 사인이 기록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 편지는 빌라델비아 교회에만 보낸 편지로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신 공적 편지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멸망할 자리에서 불러내어서 모아 놓은 곳입니다. 즉 하늘나라 가기 위한 정거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고 모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는 티켓을 가진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죄악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불러내셔서 하늘나라 가기 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즘 교회들 중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보다 세속적인 기대감을 부추기고 마치 무속신앙과 같은 방식으로 가르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6:1-7에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기하급수적 부흥이 이루어졌을 때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수집사 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직책과 직분이 생겨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어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얻고 권세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 얻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 얻었거나 구원 얻기 위하여 영적 지도에 소망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을 에클레시아(교회)라고 해서 성도 상호간에 신령한 교제를 나누면서 구제, 봉사, 전도하는 일에 목회를 깊이 이해하고 적극 협력 봉사하라고 세워진 것이 교회의 봉사직제입니다.

장로교는 목사나 장로가 똑같은 치리권을 가졌다고 장로교 헌법에 되어있지만 단 하나, 목사에게는 강도(講道)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라도 목사에게는 양 떼 중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중직으로 세움 받은 장로라도 하늘나라 가기까지 목자로부터 영적 지도를 계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교회 제직들 사이에 신학적 신앙노선이 일치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영적 체질신앙이 일치하게 되고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협력하는 일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그 교회는 진리와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급속도로 부흥, 성장하면서 그리스도 나라 확장에 크게 기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사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기쁜우리교회 부활절 기념 봄 말씀잔치

주제 :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강사: 손인식 목사

초청합니다!!

올해 초에는 축복의 단비가 많이 내려 황량했던 산과 들에 꽃들이 만발하는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단비로 영혼의 꽃을 활짝 피우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램이 있습니다. 기쁜우리교회는 부활절을 기념하여 봄말씀잔치를 열고자 합니다. 말씀 잔치에 오셔서 부활의 생명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기쁜우리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

- 일시: 4월 19일(금) ~ 21일(주일)**
- 4.19 (금) 저녁 7시 -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 6:1-3)
 - 4.20 (토) 새벽 6시 - “약점과 약함” (고후 12:9)
 - 4.20 (토) 저녁 6시 - “이렇게 살자!” (벧후 1:4-7)
 - 4.21 (주일) 2부, 오전 9시 - “마침내” (창 12:1-5)
 - 4.21 (주일) 3부, 오전 11시 -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공” (창 50:15-21)
 - 4.21 (주일) 저녁 6시 - “평범과 비범” (에 4:13-16)

강사: 손인식 목사
 알바인 벨렐교회 원로목사
 UTD-KCC 선교연합 국제대표
 이민목회연구원 원장



기쁜우리교회
 주소: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전화번호: 818-662-0400 . Fax: 818-662-0800

baeksong.kr

“근본적인 치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
성령으로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누리는
영성혁명의 현장”

LA 백송교회 성령 컨퍼런스

오전 11:00 | 오후 7:30

주제: 오전 - 신유로 열리는 천국 | 오후 - 권능으로 열리는 천국

2019. 4. 24 (수) 오후 - 5. 4 (토)

주일제외

3251 W 6th St. Suite B1,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Berendo 사이 Holms Building Center 지하 1층,
Berendo길 혹은 New Hampshire길 주차장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LA 백송교회 (담임 김성식 목사)

변화

기적

치유

시기, 미움, 원망, 교만 등 내적 치유로
예수를 닮는 성품으로 변화,
열매 맺는 삶으로의 변화와 성숙

찬양, 설교 등의 훈련
방언, 신유 및 갖가지 은사 체험,
영적전쟁의 체험적 이해

알코올/컴퓨터 각종 중독에서 자유,
기억상실증, 우울증, 공황장애 및
정신질환, 각종 암 등 영육의 질병 치유

문의) 213 674 7966 / 213 245 6616
213 249 4790

* 평일에도 집회가 있습니다.
(월, 수, 금 7:30PM)

YouTube

유튜브에
이순희 목사를
검색해 보세요!



김성식 목사

미국 LA 백송교회 담임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서울신학대학원 M.div.
Fuller 대학원 TH.M.D.Miss



원미현 목사

백송교회 교육목사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서울신학대학원 M.div.

백송 이순희 목사

백송교회 담임목사
영혼의 샘 세계선교센터 회장
백송영성수련원 원장
서울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M.div
전세계 찬양치유 부흥사
각종 세미나 강사



해외지부 캐나다 토론토 백송교회 | 647 637 4013
11 Glen Cameron Rd. Thornhill, ON L3T 4N3

미국 로스엔젤레스 백송교회 | 213 674 7966, 213 245 6616
3251 W. 6th St. Suite B1 Los Angeles, CA 90020

한국 인천본부 | 032) 469 0191, 032) 323 12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안사로 231번길 20

보령 백송 수양관 | 041) 931 0195~6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봉덕삼현길 191

대구지부 | 053) 644 0175
대구광역시 월배로 32안길 61 B1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미주성결교회

백송교회



이상구 박사 초청

치유세미나

- 일시** 2019년 4월 30일(화) ~ 5월 3일(금)
- 장소** Conifer Camp Retreat Center
32900 Conifer Camp Rd. Running Springs, CA 92382
- 참가비** \$450(일인당), \$850(부부)
사역자 특별할인 전화 문의
- 준비물** 개인용품, 세면도구, 침낭, 수건
- 문의** T.(626)810-3455 아름다운교회
email : beautifulchurch@gmail.com



강사
이상구 박사



안식교를 떠난 이상구 박사는
복음을 믿는 구원의 확신으로 이루는 놀라운 치유사역을
변함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참나무 숲 맑은 공기를 마시며
이상구 박사와 함께 치유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건강식과 숙소가 제공됩니다.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 가능

SPRING SPECIAL SALE



NEW 2019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Or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1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07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ONATA SE

Lease **\$178** +Tax Or **0 Down \$2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3,4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31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Or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78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ANTA FE SE 2.4L

Lease **\$218** +Tax Or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6,6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57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1-888-644-7114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종려주일(Palm Sunday)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은 승리하고 개선하는 왕처럼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한다는 뜻으로 종려나무(The Palm)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호성에 몹시 번민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주님을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해결사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군사를 일으켜 몹쓸 로마군대를 몰아내고 새로운 혁명 정부를 건설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에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셔야 하는 순종의 길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종려주일에 우리가 소유한 기쁨을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먹고 마시며, 나만을

위한 질없는 기쁨은 아닐까요? 혹시 나의 신앙이 전적으로 나의 만족에 맞춰진 믿음 아니었을까요? 만일 내안에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살아왔다면 우리의 삶과 주님의 삶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그렇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라고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제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주시고, 저 사람의 습성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외쳤던 적이 더 많은 것 같아 마음에 찢림을 느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하시고 순종에 삶을 사셨는데 나의 모습은 사뭇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이기적인 우리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때 참된 종려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자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전도학을 가르쳤던 로버트 쿨만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선교 병원에 한 소년이 상처를 입고 찾아 왔습니다. 그 소년은 정글에서 나무를 베다가 크게 다쳐 상처를 입었는데 함께 나무를 베던 친구의 실수로 발톱뿔치가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당한 사고라 가족들에게 알릴 겨를도 없이 상처난 발로 친구와 함께 병원으로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소년의 발바닥이 땅 위에 닿을 때마다 핏자국이 땅 위에 남게 되었습니다.



박성근 목사
남가주세울교회

뚜렷한 길도 없었고, 또 한번도 그 병원을 찾아와 본 적이 없는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여기를 찾아 올 수 있었습니까?" 의사들의 물음에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이 걸어 간 길을 찾는 것은 조금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의 핏자국을 따라 왔으니까요." 핏자국은 고통당한 사람이 걸어간 흔적입니다. 더구나 그 피가 사랑하는 아들이 흘린

피라면 그 자국을 놓칠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동일한 핏자국이 하나님 아들의 자취 속에도 남아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 진정한 가치는 이 자취를 따라 감에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길이 있고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피의 자취보다는 화려한 성공의 자취를 추구합니다. 더 큰 것, 더 높은 것, 더 찬란한 영광만 따라 가느라고, 피의 자국 속에 서려있는 하나님의 가슴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십자가의 길에 있습니다. 미련한 듯 보이는 십자가, 실패한 듯 보였던 그 십자가 속에 길이 있고 부활의 새 능력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은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나타난 빌라도와 베드로

빌라도의 판결과 베드로의 배신의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한국교회는 누구를 따르고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2천년 전 예루살렘에서 죄 없는 예수를 죽이라는 판결이 고난주간을 앞둔 20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안국동에서 벌어졌다.



이명진 소장
성산생명유리연구소

죄 없는 태이들이 분별없이 성을 죽인 자들의 책임을 안고 죽음에 내몰리는 상황이 됐다. 무죄한 아이를 죽이려는 비도덕적이고 비겁한 광기에 손을 들어 주었다. 위험하고 부끄러운 현재 판결은 실망을 넘어선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던 헌법을 무너뜨린 결정은 살인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제 불평하거나 부담스러우면 죽음으로 내몰리는 세상이 도래 했다.

위헌결정을 내린 현재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미래가 암울하다. 어떻게 생명을 숫자로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인가? 22주 이전까지는 태아를 죽여도 된다는 재판관들의 가치관은 철저히 유클론적 세계관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런 재판관들의 손에 국민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인 헌법 해석을 맡긴다는 것이 불안하고 억울하다.

앞으로 인간을 물질로 보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나태의 범위를 점점 더 확대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고, 기형이나 질병을 가진 영아살해로 이어질 것이다. 더 나아가 요양 병상에 누워있는 병들고 늙은 노인들이나 치매 노인을 없애버리자는 패악한 윤리적 타락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생명윤리는 미끄러운 경사길에 접어들었고 언론은 경사길에 기름을 갖다 붓고 있다. 자신들의 결정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윤리적인 행위인지 생각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가 무너진다.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와 문명이 멸망하게 된다.

낙태 허용을 성공시킨 자들은 더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할 것이다. 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에게 재갈을 물리고 처벌하겠다고 달려들 것이다. 전도를 방해하는 것을 넘어 전도를 금지시키고, 미션스쿨을 없애버리고, 예배당을 타락한 문화시설로 몰수해 갈 것이다.

언제까지 반 기독교적 정서에 기가 눌려 꼬리를 내리고 비겁하게 숨어 있을 것인가? 침묵은 암묵적 동조다. 소리를 내야 할 때 내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의 아이들이 죽어갈 때 나는 어디 있었느냐?'고 물으실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베드로처럼 숨지 말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고난이 다가올 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된다.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떠내려간다. 교회는 거친 세상 공격에 맞서 물살을 가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낙태와 동성애, 성윤리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깨어나야 한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가"라고 물은 것처럼, 성도들은 물밑 듯이 밀려오는 윤리적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른다. 목사와 장로, 교사들이 먼저 공부하고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성도와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 성도들이 신앙과 삶이 일치하도록 성경적 세계관을 알려주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성을, 가정을 이를 배우자를 위해 잘 지켜야 하고, 혼전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되고, 부부의 성생활도 질서를 지켜 지나친 성적 욕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아동부와 고등부 사역자

선한목자교회는 LA 동부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사역하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다음과 같이 아동부와 고등부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하실 파트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1. 지원자격

- (1) 신학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생
- (2) 이중언어(한국어, 영어)가 가능하신 분
- (3) 합법적인 미국 체류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2. 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신앙간증 포함), 추천인 2명 기재 요함 (관계, 연락처 포함 - 추천서는 소정의 서류 심사 후에 요청드립니다)

3. 주요사역

주일 예배 및 주중모임(금요일 7:30pm) 인도와 기타 관련된 사역

4. 제출하실 곳

To, Pastor Clark Choi / 최 클락 목사 - 교육부 담당목사

5. 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 (909)591-6500 | info@sunhanchurch.com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 활짝 웃으세요.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빠르게 속효성입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환자 인지율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 혈당 관리 없이 100년째 당뇨병 신장을 치료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50%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당뇨병 예방'은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뇨병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당뇨병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 ▶ 약이 인슐린 대체제를 사용합니다. 인슐린 대체제를 사용하면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대체제를 사용하면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대체제를 사용하면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활동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영양 성분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왜 아연이 부족할까요? 우리 몸이 많은 양의 아연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인슐린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인슐린의 효과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인슐린의 효과를 떨어뜨리게 되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프로지의 특별한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순수한 아연의 체내 흡수율은 10% 미만입니다. 프로지는 아연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프로지는 아연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프로지는 아연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n Metabolism 연구팀은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연이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고 인슐린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인슐린의 효과를 높여줍니다. 프로지는 아연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프로지는 아연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 시작됩니다
당뇨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HbA1c) 1%만 줄어도	43% 사망률 또는 부양비용 절감	37% 심장병 위험 감소	21% 당뇨병 합병증 예방	14% 신장병 예방	12% 시력 보호
----------------------	--------------------	---------------	----------------	------------	-----------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는 당뇨의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 6.5% 이하로 유지하면 당뇨병 합병증 예방 효과가 높습니다.

문의 전화 213.434.1170
3020 Wilshire Blvd, #160, LA, CA 90010 | www.prozusa.com / prozusa@gmail.com

LOS ANGELES MONTEREY PARK GOLF ACADEMY

일반인·주니어를 위한 특별 맞춤 골프 프로그램

- 대상 : 일반인·주니어 레슨(8살~18살)
- 시간 : 평일 레슨(화~금), 주말 레슨(토)
- 장소 : Monterey Park Golf Club (LA한인타운에서 차로 15분 거리)

- 골프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 대학진학 전문상담
- PGA 투어 출신 프로가 체계적인 스윙 교정, 숯 게임, 필드 레슨까지

Robert Sul
University of Las Vegas Golf Team's 2 Times 백상배 챔피언
2009 KPGA TOUR
AJGA all-American
Golf Digest Top Ten Amateur

Kenny Kim
Named 2004 Gahr High School Athlete of the Year
UC Irvine Men's Golf Team from 2004~2008
2006 PGA Tour Buick Open at Torrey Pines
2010 U.S. Open at Pebble Beach
2010 PGA Tour Reno-Tahoe Open
2011 Long Beach Open(T2nd)

T:(562) 383-3566

“늙어가는 교회, 가정이 살아야 다음세대도 있다”

[인터뷰] ‘교회-가정-학교 유기체론’ 안병만 목사

교회와 사회에서 가정은 어떤 의미일까? 다음세대를 책임 질 아이들은 과연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우리 헌법과 맞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가정과 다음세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이때, “가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뿌리”라고 역설하는 안병만 목사(열방교회)와 마주했다.

“왜 교회는 자꾸만 고령화 될까?”

-가정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언제부터였나?

“목회하기 전 영국과 남아공에서 유학생생활을 8년간 했었다. 특히 영국과 유럽에서 쇠퇴하는 교회들을 보며 ‘우리도 유럽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부산의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 교인들이 거의 다 머리가 희끗한 분들이었고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이 적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의 연령 구조가 삼각형이었는데 이제 역삼각형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얼마 뒤인 지난 2000년 용인 수지에서 지금 목회하는 열방교회를 개척했다. 그 때는 한국교회에 선교의 불이 막 시작되던 시기였다. 나 역시 선교에 관심이 많았다. ‘열방’이라는 이름도 그래서 지었다. 그렇게 개척하고 한 7년 쯤 지났을 때 심각한 고민이 생겼다. ‘왜 교회가 자꾸만 고령화 되고 다음세대는 줄까?’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가정으로 눈을 돌리게 됐다.”

-왜 그 원인을 가정이라고 생각했나?

“교회나 사회나 문제의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가정이 허약해지고 붕괴한 탓이다. 사람들이 가정에 소홀하니 우선 출산에 별 관심을 갖지 않는다. 낳았다 하더라도 한두 명이고, 그 아이들마저 바로 교육시켜 키워내지 못한다. 스마트폰 같은 각종 미디어를 통해 음란물과 게임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믿음의 가정도 교회 공동체도 자꾸만 세상에 아이들을 빼앗긴다. 그러다보니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로 전수되지 않는다. 그들이 자라서 또 가정을 이뤄야 하는데, 결혼도 기피한다. 비혼과 독신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한 세상, 홀로 즐겁게 살자는 가치관이 팽배하다.”

“유대인들에게 가정은 곧 성전”

-가정을 회복시킬 단서를 찾았나?

“그런 고민을 하다 우연히 쉼마 교육을 접하게 됐다. 바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방법이다. 이를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다시 한번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 유대인들은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신학적으로도 그것을 ‘성전’과 연결시키고 있었다.

반면 기독교는 그렇지 못했다. 우리는 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정의 신학적 의미를 소홀히 다루어 왔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일주일에만 한 번 교회는 열심히 가도, 가정에 배는 ‘안 드러도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가정은 단순히 가족들이 편히 쉬는 곳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쉼마교육을 통해 가정을 성전 못지않게 매우 소중히 여겼다. 그들에게 신앙전수의 연결고리는 다름 아닌 가정이었다.

유대인들은 거룩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카도쉬’를 신학적으로 매우 구체화 시켰다. 바로 시간(Time)의 거룩, 장소(place)의 거룩, 그리고 사람(person)의 거룩이다. 시간의 거룩이란 7일 짜인 안식일과, 7년 후의 안식년, 그 7년이 7번 반복된 다음인 희년이다. 이런 날들을 구별해 거룩하게 지켰다.

또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장소는 우선 성전이었고 그 다음이 가정이었다. 우리로 치면 교회와 가정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정을 성전만큼 거룩한 곳으로 여겼기에 이혼과 간음 그리고 성적인 부도덕함을 그토록 철저히 금지시킨 것이다. 그들에게 가정은 곧 성전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설령 성전이 훼파되어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들의 신앙을 지켜올 수 있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므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사는 가정은 당연히 성전이 된다. 그 자체로 거룩한 곳이면서 모든 사회와 국가, 교회 공동체의 뿌리다. 그런데 오늘날 이 가정이 무너져 있다. 비단 한국만 그런 건 아니다. 세계적 현상이다. 동성애의 물결이 가정까지 넘보고 있다. 어찌 사탄의 전술이 아니라 할 수 있겠나?”

“평일의 삶도 거룩한 예배 돼야”
“삼대가 함께 드리는 통합예배로”

-구체적으로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다. 일단은 교회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인



안병만 목사. 그는 “교회나 사회나 문제의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가정이 허약해지고 붕괴한 탓”이라고 했다. ©송경호 기자

다음세대를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결국 목표는 영성과 인성, 지성을 갖춘 전인적인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영성에 있어선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인성은 가정이 7~80%를 담당한다고 보면 된다. 요새 강남에 인성학원이라는 것도 생겼는데, 인성은 학원에서 가르쳐서 될 게 아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지성이다. 학교가 담당하는 영역이다. 유대인들도 회당에서 자녀들을 교육했다. 그들에게 랍비의 권위는 정말 대단하다.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자녀의 신앙에 대한 부모의 착각이다. 그들은 평일의 삶이 어떠하든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내 아이가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평일 내내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다고 그 삶에 성령이 임재하고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까? 아니다. 그러므로 관건은 우리의 삶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느냐(롬12:1)에 있다.

그래서 가정예배가 정말 중요하다. 평일에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주일에 또 교회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면, 현재 가정들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아마 해결될 것이다. 아이들은 자연스레 가정을 교회처럼 경외하고 부모를 영적 육적 목회자로 존경하게 될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신앙의 전수는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 세대차이는 없어지고 신앙이 계승되어,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의 명가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교회도 부모와 자녀를 분리시켜 따로 예배를 드리기도 삼대(三代)가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통합예배를 드렸으면 한다. 말하자면, 가정과 학교, 교회가 유기적 관계에 있을 때 다음세대를 온전히 양육할 수 있고, 이것이 또한 가정 회복의 열쇠라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 교육, 포기해선 안 될 영역”

-가정과 교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학교 문제는 어떻게 하나? 미션스쿨이 있지만 제약이 많고, 무엇보다 작은 교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물론 어느 정도 제약이 있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의지만 있으면 작은 교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학교는 교회와 가정에서 영성과 인성을 함양한 아이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지성을 쌓을 수 있는 곳이다. 우리가 절대 포기해선 안 될 중요한 영역이다.

열방교회도 대형교회가 아니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3년 전부터 시작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나온 아이들이 거의 그대로 초등학교까지 입학한다. 초등학교를 설립하게 된 것도 사실 부모들의 요청 때문이었다. 그들은 공교육에 자녀들을 맡기기보다, 기독교 신앙과 세계관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원했다.

지금 초등학교에선 40여 명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다. 오전엔 성경만 공부한다.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토론하고 강의를 듣는다. 일반적인

학습은 오후에만 해도 충분히 따라간다. 체육이나 예술 분야를 제외하면, 학원에 다니지도 따로 과외를 받지도 않는다.

유대인들은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마치 물과 물고기의 관계처럼, 그들은 교육을 떠나선 살 수 없다고 믿었다. 그들에게 가정과 성전, 회당이 서로 연결된 유기체와 같았다. 유대인들이 소수 민족이나, 세계 각 분야를 이끄는 데는 다 이 유가 있다. 물론 그들과 우리의 신앙은 다르지만, 배울 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는 항상 창조적 소수(Creative minority)가 이끌어 왔다. 토인비는 창조적 소수에 의해 역사가 진행되어 왔음을 말하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발전한 유대인들의 문명을 ‘유다이즘’(Judaism)으로 명명했다. 기독교(교회)도 가정과 교육의 소중함을 하루 빨리 깨달아 그런 리더들을 길러내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가 사는 길이고 한국교회 미래의 대안이다.”

-안병만 목사는

고신대학교와 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남아공화국 포체프스트룸 대학교에서 신학석사(Th.M)와 박사(Th.D-설교학) 학위를 받았다. 영국 위클리프대학에서 선교학을 공부했다. 학생신앙운동(SFC) 총무간사, 부산수정교회 담임목사, 고려신학대학원 및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초빙강사를 역임했고, 현재 쉼마교육연구원 본부장, 쉼마교회 부위원장, 코람데오닷컴 운영위원장, 쉼마초등학교 이사장, 열방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김진영 기자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 2019년 봄학기 학생모집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PRINCETON BIBLE UNIVERSITY)에서 2019년 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아 그의 사역자로 헌신하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모집과정

◆학사 과정 (B.Th/B.A)

- 신학사
- 선교학사
- 기독교상담학사
- 기독교교육학사

◆석사 과정 (M.Div/M.A)

- 교역학석사
- 신학석사
- 선교학사
- 기독교상담학사
- 기독교교육학사

◆박사 과정 (D.Min/Ph.D)

- 신학박사
- 선교학박사
- 기독교상담철학박사
- 기독교교육철학박사

수시 입학 가능

등록상담전화
310-678-6836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A, CA 90057 | TEL: 310-678-6836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

참,(진리의 길) 앎,(학문의 길) 삶,(십자가의 길)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M.A 석사과정 | 48학점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본교 지원시 특전

- 1)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가능
- 2)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 수여가능
- 3)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 (학점교환 가능)

수시 입학 가능

입학상담: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 213-272-6031

고난주간 한끼 금식 한생명 살리기

2019.4.1 |월| ~ 4.21 |일|

2019전세계 빈곤아동돕기

고난주간 금식운동은 성도들이 하루 한끼 이상 굶고 그 금액을 하루 한끼도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프리카 아동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캠페인입니다.

지금도 1분에 30명, 하루5만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갑니다.

월\$35 이면 아동 한명이 한달동안 건강하게 학교 다닐 수 있습니다.

\$100 이면 아이티 아동 10명이 한달동안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5,200 이면 아프리카에 4,000명이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우물을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헌금은 32개 빈곤국가의 아동들을 위한 **급식 및 식수지원사업비**로 사용됩니다.

877-499-9898

kr.goodneighbors.us

보내실곳: Good Neighbors USA P.O. BOX 5969, Buena Park, 90622

문의: jkim@goodneighbors.us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52개 지부, 북한 및 해외 38개국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의료비 대책 세우셨습니까?

CMM 기독교의료상조회는 의료비 나눔을 통해 의료비 걱정을 해결합니다.

CMM 기독교의료상조회는 성경적인 삶을 사는 4만여 성도들이 참여해, 짐을 서로 지라 (갈 6:2)는 성경 말씀에 따라 의료비 나눔과 중보 기도로 서로 도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로고스선교회 산하에서 1996년에 시작된 CMM 기독교의료상조회는 지난 23년 동안 문제없이 의료비를 지원해왔으며, 소수민족 단체로는 유일하게 미 보건복지부 산하 CMS(Centers for Medicare&Medicaid Services)로부터 승인받은 의료비 나눔 사역 단체입니다.

23년 역사의 CMM과 함께하는 우리의 미래는 건강합니다!

- 저렴한 회비로 다양한 의료비 지원 (질병당 \$150,000)
- 미국 내 의사나 병원 제한 없이 지원
-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 골드플러스 회원은 건강검진비 지원 (\$500/1년)
- 새 회원 소개 시 회비 크레딧을 주는 Member Referral 제도
- 장례비 보조를 위한 Life Plan (사망시 평균 회비의 100배 지원)
- CA 샌디에고 인근 라모나 기도원/쉼터 이용시 할인 혜택

새 회원을 소개하면
회비 Credit 을 드립니다.

Life Plan
회원 사망시 장례비* 지원

*평균 회비의 100배

프로그램	Gold Plus	Gold	Silver	Bronze
1인	\$175	\$135	\$80	\$40
2인	\$325	\$260	\$160	\$80
3인 이상	\$425	\$385	\$240	\$120
본인부담금(1인당)	\$500/Year	\$500/Incident	\$1,000/Incident	\$5,000/Incident
지원금/질병당	\$150,000	\$150,000	\$150,000	\$150,000

기독교의료상조회는 의료 보험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역**입니다.
비싼 보험료, 높은 디덕터블로 꼭 필요할 때 도움 받기 힘든 일반 의료보험과 비교해 보세요.

CMM 기독교의료상조회, 알면 알수록 놀랍습니다.

<p>저렴한 회비 월40월부터 가입 가능 (자녀 1명만 내면 나머지 자녀 무료)</p>	<p>낮은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이상 의료비 할인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p>	<p>다양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의사비, 검사비, 치료비, 응급실, 처방약, 임신 및 출산, 입원/수술비 등</p>
<p>골드플러스건강검진비지원 매년 \$500 건강 검진비</p>	<p>의료비 지원금 질병당 \$150,000</p>	<p>Burden Sharing 15만불 이상 의료비는 전 회원이 함께 나눠 100만불까지 지원 가능</p>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cmmlogos.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MM 캘리포니아 가입문의:
 직통: 714-333-7487 Email: sungaeshin@christianmutual.org
 캘리포니아 사무실: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인터넷가입 www.cmmlogos.org



예수 부활하셨네

주님의 부활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기쁜 소식



한기형 목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오늘 부활의 아침에 동참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주님을 잃고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기쁨과 환희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사건은 제자들의 인생

관을 확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죽음과 같은 어두움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힘있게 확신하게 되었고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두운 환경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 다시 사셨네! 라는

믿음의 고백은 새 힘과 용기를 줍니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자매들에게도, 삶의 의욕이 상실된 어르신에게도 주님의 부활은 오직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라 아들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

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라고 선포한 것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빛이 온 가정과 사회와 일터 위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앞날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요한복음 20장 24절~31절)

우리는 지금 과학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 사회는 이전엔 상상하기 힘들던 신기술의 개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사실은 받아드리기 쉽지 않은 진리입니다. 특별히 감각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사회에 있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하나의 종교적 신화처럼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의 회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는 직접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자신의 손가락으로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또한 그 옆구리에 난 창 자국을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서구 사회에서 “Doubting Thomas” 즉 의심하는 도마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마는 믿음생활에 있어서 의심이란 부정적인 신앙요소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회의와 의심이 다 부정적이고 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갈릴레오의 말처럼 회의는 발견의 아버지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회의는 현실에 만족하지 않는 삶의 더 큰 풍성함을 줄 수 있는 올바른 신앙과 굳건한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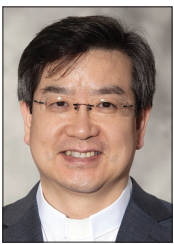
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덮어놓고 믿으라는 신앙이 받아드려지기 정말 힘들 때 의심과 회의를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솔직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자신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 가장 먼 지역,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의심을 넘어설 때 그 신앙은 나의 신앙이 되면 더 열정적인 헌신을 이끌어냅니다. 얼치기로 알고 있는 신조보다도 성실한 회의 속에 참다운 신앙으로 사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회의와 의심으로 고민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의심을 넘어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마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의심이 가질 수 있는 이들을 위해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보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보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임철규 교수님(논의 미학 중에서의) 말에 의하면 눈은 무엇을 인식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관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시각을 통해 일부분만 알고 엄청난 전체의 나머지 부분은 삭제되기 때문에 눈은 관찰자 자신과 관찰자의 인식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눈이란 성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쓰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며 흘리는 수많은 믿음의 눈물이 눈의 본질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세계는 너무 작습니다. 우리의 눈은 무한한 우주공간의 티끌 같이 작은 부분만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눈으로는 우주공간보다 더 큰 영혼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로 물질세계, 우주공간을 넘는 영원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와 그 진리를 보게 합니다. 그러기에 참된 영원

한 진리는 바로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고로 뇌 손상을 입어 병원에 누워 있는 아들을 둔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의 실화입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30세 된 아들이 몇 해 전부터 계속 무의식 상태에서 병원 침대에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는 모습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 부부는 지쳐서 아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애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안 아무 반응도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것이지요. 그 아들을 자주 방문했지만 그 애를 향한 애정이나 사랑이 점점 죽어가는 현실을 그 부부는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그 아이를 방문했을 때 처음 본 인근 교회 한 목회자가 자신의 아들의 병실을 찾아온 것을 문 밖에서 몰끄러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마치 그 아이가 알아듣는 것 같이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마치 내 아들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을 알아듣고 같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아버지는 마음 속으로 비웃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세요 내 아들이 어떤 지경에

있는지 모르십니까! 숨만 쉬는 송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동시에 갑자기 마음속에 스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저 목사님은 내 아들의 상태가 어떤지 다 알고 계시지 않는가! 그렇지만 내 아들이 온전히 살아 있는 아이처럼 그에게 이야기 하고 기도하고 돌봐주고 있지 않은가! 그래 저 분은 내 아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 다 완치된 것처럼 말아야. 아니 주님이 지금 그 옆에 오셔서 그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대화를 들으시며 내 아이를 고쳐주신 것처럼 말아야.”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순간 자신과 제 아내에게 그 아들이 온전한 아이임을 보게 해주시고 그를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기도 보다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필요합니다. 그 절망의 현실은 나의 참된 현재의 전부가 아니라고 의심하며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영원한 소망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진리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김경진 목사
기뻐우리교회

의 하나님”이라는 자신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 가장 먼 지역,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의심을 넘어설 때 그 신앙은 나의 신앙이 되면 더 열정적인 헌신을 이끌어냅니다. 얼치기로 알고 있는 신조보다도 성실한 회의 속에 참다운 신앙으로 사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회의와 의심으로 고민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의심을 넘어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마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배운 것 없고 영향력이나 권세도 전혀 없으며 돈도 없고 통신 수단도 없는 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더구나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메시지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답은 한자입니다. 그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직접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클럽이 아닙니다.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후에 모든 것이 달라지



이서 목사
OC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게 됩니다. 그 진리를 믿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직접 일하시고 우리에게 평안, 행복, 기쁨, 확신, 소망, 믿음, 영향력을 주시고 고난을 이기

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이 놀라운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실패, 고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확신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마동환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예수 부활하셨네”

Attorneys
David Marh
Simon Langer
Frederick Alschuler
Gordon Turner
Nicholas Valmes
Walter Roberts
Douglas Villinger

이민법
낮선 땅에서 안정된 신분과 안정된 삶의 정착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심본 새겨서 가족의 일과 같이 모든 신분변경 및 이민케이스를 꼼꼼함과, 정성과, 넓은 시야를 갖고 대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뢰인들께 만족한 결과를 드린 것이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와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녀는 분야 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 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 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하십시오!
모든 상담은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무료상담 / 이메일 예약 환영



辯護
변호

實力
실력

精誠
정성

責任
책임

信賴
신뢰

www.marhlaw.com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염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때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마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이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의력을 갖춘 것이 마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습니다.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은 모든 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기간 귀한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 받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어느때든지 마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긍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일 것입니다. 한분 한분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믿거름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친분이 없는 것 같고 있습니다.

tel. 213. 487.9190

fax. 213.487.9484

email. marhlaw@yahoo.com

3325 Wilshire Blvd., Suite 1350, Los Angeles, CA 90010

미주장신대... “선교를 섬기고 이민자를 이해하는” 신학교로 발돋움

“안디옥 교회, 파송받는 자와 보내는 자 모두 선교에 동참”
“이민목회를 평생해도 이민자의 심리 모를 수 없어”

선교지향적인 학교'를 장기 목표로 삼고 이 목표의 성취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학이 있다. 바로 미주장로회신학대학(총장 이상명 박사)이다. 올해만 해도 북콘서트, 기독교 인문학 목요포럼, 캠퍼드라이브 캠페인, 산타페 상담소 개소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상아탑 안에 갇힌 학문이 아닌, 이 시대의 현안에 복음주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올해 새롭게 개설된 선교학 석사 학위 과정(Master of Arts in Intercultural Studies)과 2016년 개설된 상담심리학 석사 과정(Master of Arts in Christian Counseling Psychology)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미주장신에서 복음의 실천과 삶의 적용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있는 김루빈 교수와 김용환 교수를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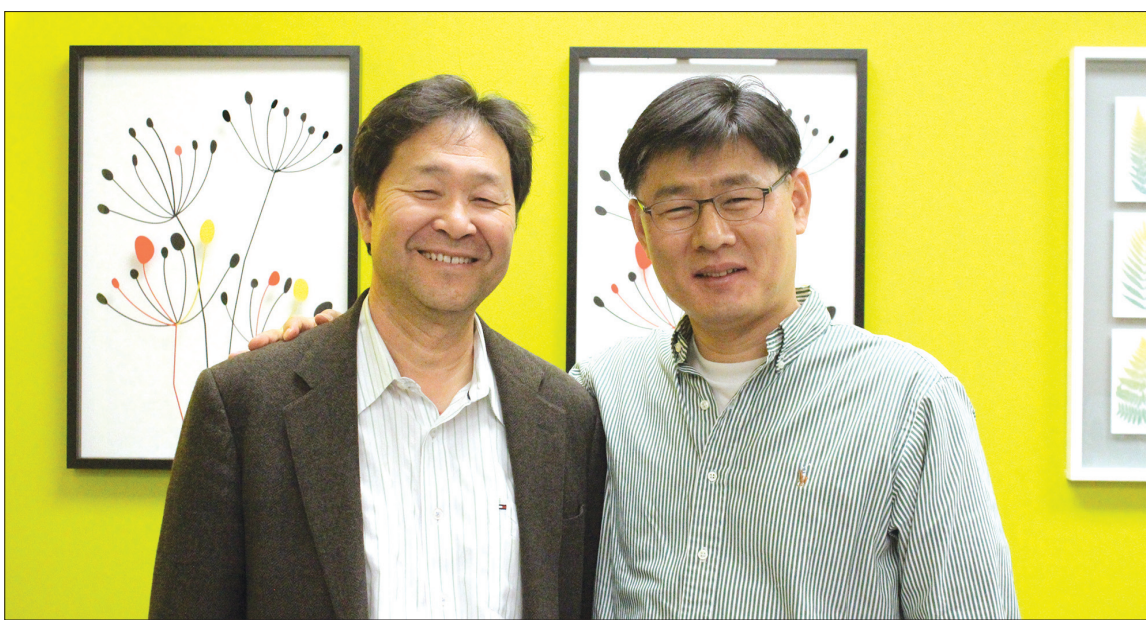
상담학 석사과정 디렉터인 김루빈 교수는 조지아 공과대학에서 학사를 마치고 캘리포니아주립대학(LA)에서 경영학 석사, 비올라대학 탈봇신학교에서 목회학, 신학석사를 받고 현재 교차문화 박사과정(D.I.C.S.)을 밟고 있다. 또한 7년간 OCI 란 선교 단체를 통해서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현지교단과 협력하여 교회 세우는 사역을 했다.

김 교수는, 중국이나 중동국가 등 선교에 대한 거부감을 지닌 국가들에 선교사가 선교학 학위를 갖고 들어갈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신학대학들이 선교학(Missiology)을 교차문화학(Intercultural Studies)으로 용어를 대체하는 추세라며 Intercultural Studies라는 용어를 채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선교학과에는 4명의 교수진이 있으며,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과정이 있다. 작년 11월에 ABHE로부터 인가 받고 올해 봄학기부터 시작해, 이번 가을학기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학생을 유치하려는 단계에 있다.

김 교수는 교수진들의 풍부한 선교경험과 선교 경험의 전수를 특징으로 꼽으며, 다양한 선택과목을 통해 선교현장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지식과 실천의 기회가 제공된다고 말했다.

“저희 선교학 과정은 세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 파트는 성경에 대한 기초 지식을 다루는 성서학 및 신학(12학점)을 배운다. 그리고 선교학을 배울 때 필수적인 과목들-선교학 개론, 기독교 선교의 흐름,



선교학 석사과정 디렉터 김루빈 교수(좌)와 크리스천상담심리학 디렉터 및 전임교수 김용환 교수(우)

문화 인문학, 교차문화 대화 등-을 배운다(18학점). 선택과목(12학점)은 현대 선교 흐름에 맞춰 실질적으로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지, 아카데미한 면 뿐 아니라 실천적인 면도 배울 수 있게 구성했다. 글로발교회 설립과 전파, 자립선교, NGO 설립과 선교,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등 다양한 과목이 있다.”

그는 LA와 LA근교만 해도 이슬람 사원이 있다며, 다른 나라로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여기’ 역시 선교지일 수 있다고 말한다.

“저희 교수진 중에는 중동선교를 오래하신 분이 계신데, 아직까지는 크리스천들이 무슬림보다 많지만 앞으로는 무슬림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통계가 발표된 적이 있다. 가든그로브에 이슬람 모스크가 있고 신도수가 약 7,200명에 이른다. 이것만 봐도 선교지가 여기라는 걸 알 수 있다. 이슬람권 선교에서는 대화가 중요한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게 된다.”

그는 서구적 콘텐츠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선교지에서 가르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한다.

“지역 마다 문화가 다르다. 미국과 서구지역은 정의 문화(justice culture), 아시아 지역은 체면과 수치(honor and shame), 아프리카는 공포와 힘(fear and power)의 문화를 갖고 있다. 서구의 ‘예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표현을 다른 문화권에서 사용하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아시아에서는 ‘예수께서 우리의 수치를 버리시고 체면을 회복해주셨다’로, 아프리카에서는 ‘예수께서 사탄의 힘을 없애셨고 그는 어느 신보다 강한 분이니 예수를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효과적이다.”

선교학 석사학위 과정은 총 42학점이고 1학점당 \$260이다. 이 석사과정 전체를 1만불 정도로 마칠 수 있도록 등록금을 책정했으며 장학

금 제도도 잘 갖춰져 있다. 목사나 사모인 경우 학비 15퍼센트를, 선교사는 30퍼센트를 학교가 보조해 주며 평신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준비되어 있다.

입학 조건은 학사학위가 있으면 된다. 이 프로그램 내에 성서 신학과 신학이 포함되어 있기에 신학 관련 학위가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미주장신의 장점은 100퍼센트 원격교육(온라인)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선교학 석사 과정을 100퍼센트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다. 여름학기는 5월 17일에 시작하며 100퍼센트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여름학기 원서 접수는 4월 말까지 받는다. 가을학기는 8월 26일에 시작하며 입학 원서는 7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그는 마지막으로 “안디옥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파송하는 자이든, 파송받는 자이든 모두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본교 선교학 석사과정은 이 양측 모두에 유익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크리스천상담심리학 디렉터 김용환 교수에게 상담학과를 개설하게 된 계기와 상담학과 필요성에 대해 들어보았다.

“제가 이민교회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민자들의 독특한 특성이 문제로 표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신앙적으로 봐도 그렇고 심리적으로 봐도 그렇고 건강하지 않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욕구를 교회에 와서 표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많은 이민교회 목회자들과 이 부분에 대해 대화를 나눴는데 많은 분들이 동감하셨다.”

유학을 위해 미국에 온 그는, 한인교회를 출석한 첫날 당일에 교인들의 표정에서 평범하지 않은 부분

을 발견했다. 교인들은 웃도 잘 갖춰 입고 겉으로 볼때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그들의 표정이 화가 나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 후 그들의 표정은 그의 마음에 의문부호를 남겼고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의문은 그를 따라다녔다.

“이를 놓고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이유를 알게 됐다. ‘이민교회 안에 상담사역이 정말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민자가 지닌 사회심리적인 문제가 있으나, 목회자들이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해 그들에게 맞는 메시지를 못 전한다. 신문에서 보게 되는, 이민교회의 문제와 처방에 관한 글을 읽다보면 이민자들의 현실과는 상관없는 뜬 구름 잡는 이야기가 많아서 이민교회에 전문적인 상담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민교회가 이민자들의 특수한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다.”라며 이민자를 위한 전문화된 상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같은 필요에 3년전에 상담학과가 시작됐고 산타페 상담소도 올해 2월 12일에 오픈했다. 그는 이민교회 목회를 평생 했더라도 이민자를 모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민자들의 심리적인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따로 그 부분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이를 배우고 이민교회로 돌아가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목회하고 상담하는 상담자들이 이민교회에 필요하다.”

상담학과는 총 48학점이며 개론과목, 가족치료(family therapy), 문화심리학, 이민자의 심리에 포커스를 둔 과목, 상담의 기술을 다룬 상담실습, 인지행동 치료, 정신역동적 이론 등이 있다.

김 교수는 산타페 상담소와 관련된 두가지 계획을 전했다. 첫째는

이민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이다. 미국 이론을 갖다가 이민자에게 적용해도, 한국 이론을 이민자에게 적용해도 맞지 않아서다. 따라서 이민자들이 처한 특수한 심리적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 둘째, 신학교 안에 노인에 대해 전공한 교수가 없고 교회 안에도 노인에 대해 잘 공부하고 목회하는 곳이 많지 않다. 노인 사역을 개발할 수 있는 곳, 노인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갈 수 있는 상담소가 되는 것이 두번째 꿈이다.

상담학과와 일정 및 장학금 제도는 선교학과와 동일하다. 현재 상담학과 재학생은 30명 정도 되며, 모두 다양한 이유로 이 과정을 밟고 있다.

“사모님들도 계시고, 전도사, 평신도 등 다양하다. 선교사님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서 선교 현장에서도 상담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신다. 토론방에 매주 토론 주제를 놓고 대화를 나누는데, 선교지에도 상담사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다.”

“직장을 다니다가 인간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 수업을 들은 분, 풀타임 간호사인데, 은퇴 이후 교회를 섬기고 싶어 들으시는 분, 교인들을 돌보는데 한계에 부딪혀서 한계를 풀기 위해서 오신 전도사님, 상담이라는 영역을 오래 전부터 동경하다가 공부를 하게 된 분, ‘나를 이해하고 싶어서’ 배우시는 60대 권사님 등 다양한 분이 계신다.”

김용환 교수는 “상담사역을 공식적인 라이선스를 받는 사역도 중요한데 인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 지를 배우고 싶은 이들, 힘들어 하는 이들을 돕고자 하는 분들은 누구나 와서 배우길 추천한다”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김용환 교수는 아세아연합신학대(B.Th., Th.M.), 장로회신학대(M.Div.), 예모리대학교(Th.M.), 클레어몬트신학교(Ph.D.)에서 수학했다.

1977년 설립 이후 오프라인과 온라인 과정에서 복음주의 신학 교육을 제공하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대표적인 선교지향적 학교로 자리매김 해온 미주장신대는 2011년 ABHE 정회원 자격 취득, 2017년 11월 ABHE로부터 선교학철학박사 과정 인가, 2018년 6월, ATS로부터 M.Div., M.A.C.C.P. 과정 정회원 자격을 취득했다.

학교 웹사이트: www.pts.edu

선교학 디렉터: 김루빈 교수(rbkim@pts.edu)

크리스천상담심리학 디렉터: 김용환 교수(yhkim@pts.edu)

주디 한 기자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BETHEL CHURCH 남가주벤엘교회

예배시간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셀가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담임목사 **오 병익**

562-524-2037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info@bethelchurchsoca.org

예수 부활하셨네

축 부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미드웨스턴 침례신학교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 남침례교단 6대 신학교
- 600명의 한국 학생 재학중
- I-20 발급 및 장학혜택
- 인텐시브 및 온라인으로 진행
- 성경사역학 철학박사 (Ph.D.)
- 목회상담학박사 (D.Min. in counseling)
- 선교목회학박사 (D.Min. in Missions)
- 설교목회학박사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 가족상담학 석사 (MACO)
- 신학연구석사 (MTS)



박성진 학장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ks

축 부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벤츄라 카운티 교역자협의회

회장 : 남재현 목사

총무 : 권혁래 목사

회원교회

- 벤츄라 감리교회(김민영목사)
- 벤츄라 열린문장로교회(김경욱 목사)
-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이정구 목사)
- 새생명 교회(승광철 목사)
- 씨미밸리 한인교회(반채근 목사)
- 옥스나드 한인교회(김진구 목사)
- 옥스나드 연합감리교회(남재현 목사)
- 주님의 교회(오정택 목사)
- 카마리오 열방교회(권혁래 목사)
-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조인 목사)
- 카마리오 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영 목사)

축 부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
(Communicate Like Jesus)



오명찬 담임목사

예배시간 안내

- 1부 예배 오전 8:30
- 2부 예배 오전 11:00
-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 EM예배(1부) 오전 9:00
- EM예배(2부) 오전 11:00
- 한어청년부 주일오후 1:00

주소 및 전화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축 부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림학춘 담임목사

예배시간 안내

- 주일예배 오전 11:30
- 어린이예배 오전 11:30
- 찬양예배 오후 7:00 (수)
- 중보기도 오전 9:00 (목)
- 제자성서 오전 9:30 (금)
- 새벽기도 오전 6:00 (화~토)

주소 및 전화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축 부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만남의교회

예배시간 안내

- 주일 1부 오전 8:00
- 2부 오전 10:30
- EM예배 오후 12:30
- 유년부 오전 10:30
- 중고등부 오전 10:30
- 한어청년 오후 12:30
-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축 부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LA씨티교회

예배시간 안내

- 주일예배 오전 10:50
- 평신도 리더쉽훈련 매주 수 오후 7:00
-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 토요일아침예배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예수님 부활하셨네

LA 사랑의 교회



김기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차세대예배 오전 9:30)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 (수)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
*찬양시작 각 예배 15분 전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LA 백송 교회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주중 영혼의 샘 예배 오후 7:30(월, 수, 금)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245-6616

기드온동족선교회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우리들의 죄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열어 통인의 꿈을 줌 두 권의 책-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오레곤벨엘장로교회



이돈하
담임목사

1부 한국어예배 오전 8:00
2부 한국어예배 오전 9:45
3부 한국어예배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18370 S.W.Shaw St, Aloha, OR 97007
T.(503) 649-3990

미주양곡교회



지용덕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519 S.Western Ave, LA, CA 90020
T.(213)380-9377

주비전교회



이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vision.org

shalom장애인선교회



박모세
목사

지역사회 숨겨진 장애인들을 찾아내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회

http://shalommin.com

2869 W.Pico Blvd, LA, CA 90006
T.(323)731-7724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



사우스베이 목사회 일동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후 11:00
유치, 아동, 학생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오전 6:20(토)

25500 S.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326-0300

한마음 제자교회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 예배 오전 8:00
주일2부 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500 Shatto Pl, #410 LA, CA 90020
T. (213) 321-4433

한인소망교회



윤 목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9:00
주일2부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CA90274
T.(310)715-9902

한우리장로교회



강지원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5:30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 702-6709

남가주한소망교회



지영환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8:15
주일2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2869 W. Pico Blvd., LA, CA 90006
T. (213) 219-7500

호놀룰루장로교회



조일구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삼일밤예배수요일 오후 7:00
구역별예배토요일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 고등부 주일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주일 오후 1:00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T. (808) 947-5252 www.hawaiichurch.org

United Christian Seminary UCS 대학교 및 대학원



최 아브라함
총장

목사안수제도
목사안수는 UCS 대학교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미국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실시하는 교단법에 의거 목사고시를 거쳐 미국예수교장로회 교단으로 부터 목사안수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여덟 제도 있습니다.

SEVIS I-20
자체 발행

수시입학
수시출발가능

상담문의: (213)388-5992, 한국에(213)598-3146, Fax(213)388-5973
E-mail: ucscampus@gmail.com, ucscampus@yahoo.com 주소: 3130 Wilshire Blvd, #270, LA, CA90010

다우니제일교회



안성복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화~토)
주일학교 주일오전 11시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시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NEYFIRSTCHURCH.org

마테스개혁신학대학교/대학원

Mathetes Reformed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2019년 학생모집

- 본교는 세계 어디에서나 학문을 연구하고 학점을 이수 하면 졸업 및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르심에 확실한 소명이 있는 사람 중에 재정적 형편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입학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나 왼쪽 위에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4545 W. Washington Bl, Los Angeles, CA 90016
본교 교무처:(323)428-7878 / (213)377-7641

하나로커뮤니티교회



이승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7:45
주일2부예배 오전10: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오전 6:00

18616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626) 912-6600

주님의교회



오정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45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어린이 & Youth 오후 12:45
새벽 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301 W Avenida De Las Flores
Thousand Oaks, CA 91360
T.(805)208-8242

시카고벨엘장로교회



최병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아동부/중고등부 오전 11:0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저녁 8:00
월~토 새벽예배 오전 6:00

399 N. Quentin Rd, Palatine, IL 60067
T. (773)545-2222

ECO선한목자교회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www.sunhanchurch.com

갈릴리 선교교회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11:00
어린이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토요일연합새벽예배 오전 6:20

2212 S. Western Ave., LA, CA 90018
T.(323)735-6412 / gmchurch.com

베델교회



김한요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7:15
주일2부예배 오전 9:1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949)854-4010

글로벌선교교회



김지성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9:15
주일3부예배 오전11:00
EM예배 오전 9:00, 11:00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909)396-4441



워싱턴 주 선교대회 실행위원회 출범식

“선교의 빛을 발하라”

제 1회 워싱턴주 선교대회 열린다

워싱턴주선교협의회(회장 이병일 목사, 이하 워선협)가 주최하는 제 1회 워싱턴 주 선교대회(대회장 이상진 장로·준비위원장 이병일 목사)가 워싱턴주, 선교의 빛을 발하라'는 주제로 오는 26일 (금)부터 28일(주일)까지 시애틀 형제교회(담임 권 준 목사)에서 열린다.

선교대회 주 강사로는 국제 예수전도단을 설립한 로렌 커닝햄 목사를 비롯해 국제위클리프 부회장으로 인도네시아에서 35년간 선교사역 한 정민영 선교사, 풀러신학교 박기호 교수, 컴미션 대표 이재현 선교사가 나서 복음 전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개하며, 그 외에도 전 세계 각처에서 선교하는 12명의 선교사들이 참석해 강사로 나서 세계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근 선교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주강사로 나서는 로렌 커닝햄 목사는 “지금도 전 세계 선교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워싱턴주 선교대회를 통해 워싱턴주 한인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에 헌신하고, 복음을 통해 세상이 변하는 것을 확인하며,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대회장 이상진 장로는 “대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워싱턴주 모든 교회가 연합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될 것”이라며 “일회적인 선교 행사가 아닌 지속적으로 복음을 위한 행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준비위원장 이병일 목사는 “선교는 교회들에 주신 주님의 지상명령으로 교회가 가진 제일 사명이며, 반드시 해야 하는 대업”이라며 “서

북미 지역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우리들의 이웃,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워싱턴주 선교 대회는 지역교회와 성도들의 동참과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지역 교회와 모든 선교단체가 기도로 준비할 때, 서북미 선교와 부흥의 역사를 맞게 될 것”이라고 교계와 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대회 실행위원장 이형석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미국에는 여전히 불신앙적인 요소들과 인종차별,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미국 땅에 다시 한 번 부흥의 불길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서 서북미 지역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세운 교회들마다 말씀과 기도가 넘쳐나는 회개의 운동과 부흥의 파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형석 목사는 또 “대회를 위한 워싱턴 주 한인교회들과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가 일어나, 워싱턴주 한인교회가 선교 공동체를 이루고, 다 문화권까지 전도와 선교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합심해 기도하자”고 덧붙였다.

대회 장소를 제공하는 시애틀 형제교회 담임 권 준 목사는 “이번에 처음 열릴 워싱턴 주 선교대회를 통하여 온 교회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바꾸어져, 교회들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425-775-7477, 206-853-5273 풀원 기자

동부한미노회, 임시노회에서 펠리세이드교회 해산안 부결



동부한미노회가 8일 진행된 임시노회에서 펠리세이드교회 해산 추천안을 부결시켰다.

PCUSA 동부한미노회(노회장 우종현 목사)가 8일 오후8시 뉴저지소망교회(담임 박상천 목사)에서 임시노회를 열고 펠리세이드교회 해산 추천안에 대한 노회원들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25표, 무효 2표로 추천안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현재 성도 70여 명이 남아 있는 펠리세이드교회는 계속 유지된다.

펠리세이드교회 해산 추천안은 펠리세이드교회 행정전권위원회(위원장 남후남 장로)가 상정한 것으로, 행정전권위는 이 안건과 관련, “교회 부동산 상황이 결정될 때까지 존속하며 교회를 지도하려 하였으나 많은 교인들은 그 때부터 지금까지 행정전권위원회의 지도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교회 존속에 관하여 분명하고 결집된 노력이 나 의지가 없고 성숙하고 분별력 있는 리더십도 없어 더 이상 협의할 방법이 전무하다고 판단하여 교회 해산을 노회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임시노회에서는 펠리세이드교회 성도들 30여 명이 대거 회의장소를 방문해 출입구에

서 노회원들에게 교회 존속에 대한 성도들의 입장을 담은 호소문을 일일이 나눠주는 등 교회 존속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나타냈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도 노회원들은 교회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노회가 교회 해산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들을 계속했다. “숨이 붙어있는 아들을 안락사 시킬 부모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발언도 나왔다. 결국 이날 투표에서 노회원들 2/3는 펠리세이드교회 해산에 반대표를 던졌다. 교회 존속이 결정된 이후 현지에 있던 펠리세이드교회 성도들은 노회원들을 향해 “감사합니다. 교회를 잘 살리겠습니다”라고 연신 인사하며 교회 회생에 대한 다짐을 나타내 보였다.

30년 역사의 펠리세이드교회가 존속되는 것으로 결정됐으나 교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큰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펠리세이드교회 성도들은 최근 교회 부동산이 부채로 인해 차압된 상황과 관련, 법원에 파산보호(챕터11)를 신청한 상황으로 현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p>LA 지역</p>	<p>LA 지역</p>
<p>주일에배 오전 11:00 주일에배 오후 2:00 주중 영혼의 섬 예배 오후 7:30(월, 수, 금)</p> <p>김성식 담임목사</p> <p>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스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p> <p>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p>	<p>주일에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쉽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일아침예배 오전 9:00</p> <p>씨니킴 담임목사</p> <p>LA씨티교회</p> <p>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p>
<p>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2부예배 오전 9:45(화-토) 오전 9:30 오전 6:20(토) 3부예배(자세예배) 오전 11:30 *한글사역 예배 15분 전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종교기도모임(수) 오후 7:30</p> <p>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p> <p>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영육으로 이끄는 2세대를 책임지며, 이만가정을 치료하며, 선교영광을 순증하는 교회</p> <p>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gan 코너) T. (213)386-2233</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 - 토)</p> <p>장태원 담임목사</p> <p>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p> <p>3407 W. 6t.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p>
<p>Rain down 주일에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p> <p>최순환 담임목사</p> <p>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p> <p>1521 S. Hill St., LA, CA 90015 T. (310) 905-2228 / newchurchdtdia.com</p>	<p>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한식예배 오전 6:20</p> <p>한천영 담임목사</p> <p>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p> <p>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p>
<p>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 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종교동부 오후 10:30</p> <p>강진웅 담임목사</p> <p>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p> <p>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p>	<p>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p> <p>엘리아 김 담임목사</p> <p>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p> <p>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쪽출입로 위치)</p>
<p>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p> <p>진유철 담임목사</p> <p>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p> <p>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MO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12:30 청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p> <p>박현성 담임목사</p> <p>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p> <p>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r.org</p>
<p>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종교동부 EM 오전 11:00</p> <p>김민수 담임목사</p> <p>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p> <p>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p>1부예배 오전 08:30 영어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지용덕 담임목사</p> <p>미주양곡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인사화와 가정을 섬기는 믿음공동체</p> <p>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213) 267-0030 www.churchla.org</p>
<p>1부예배 오전 10:30 김경철 담임목사</p> <p>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p> <p>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p>	<p>대예배 1부 오전 8:00 새가족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종보기도회(목) 오후 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종교동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p> <p>정병노 담임목사</p> <p>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p> <p>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4-8690, (213)820-7240 Email: lasehl20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코너 First Baptist Church 건너 입석사당)</p>
<p>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유년부 오전 11:00 종교동부 EM 오후 12:30</p> <p>정세훈 담임목사</p> <p>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영양기상 7:21)</p> <p>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386-0685 www.lasahan.com</p>	<p>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영양부, 유초등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종교동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p> <p>정인호 담임목사</p> <p>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p> <p>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249-9191 www.lajvc.webchurch.kr</p>
<p>1부예배 오전 8:30 EM 영어예배 오전 10:00 곽건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종교동부 오전 10: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유치부, 유년 초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00</p> <p>에은장로교회</p> <p>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745-9997</p>	<p>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예배 오후 8시 주일 오후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p> <p>박은종 담임목사</p> <p>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p> <p>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p>
<p>1부예배 오전 09:30 김중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p> <p>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p> <p>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u@hotmail.com</p>	<p>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정창수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예배(캘리포니아) (소셜예배) 오전 11:00</p> <p>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깊은 알, 믿음, 마음, 열매</p> <p>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387-1700 C. (213)500-4737 / olympic-church.org</p>
<p>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신승훈 담임목사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리더노 오후 6:30</p> <p>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받는교회</p> <p>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1부예배 오전 8: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김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부 유아 이동부예배 오전 11:00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p> <p>주향교회 나눔의 행복이 있는 교회</p> <p>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3-4951 / 4952 F. (213)383-5085</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30(토) 종교동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전 사역, 후드 사역, 경향 사역, 십자가 사역</p> <p>청운교회 선교에 호소함, 소치 초 정신의 호소, 바른교회관의 호소</p> <p>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p>	<p>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김은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차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종교동부/청년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평화교회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 성공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힘으로</p> <p>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jcchurch</p>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213) 381-949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한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성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성도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이민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의 찾을 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562) 690-0038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청년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교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장주영 담임목사

뉴스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라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F.(909)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토) 汉语圣经班: 周二晚上: 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주일예배 오전 9시(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본성전) 매달 1월-금 오전 6: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T. (760) 636-2675 / pspkcm.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후 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낙태죄 합헌 의견’ 재판관들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 “사회·경제적 사유로 허용할 경우 생명경시 우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소원 공개변론이 열리던 모습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4 단수위헌 3 합헌 2의 재판관 의견으로 최종 헌법불합치 판결했다. 재판관들 중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 직후 이 두 재판관들의 의견 요지도 공개했다.

이들은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고유한 가치를 가지며,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라며 “태아는 인간으로서 형성되어 가는 단계의 생명으로서 인간의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이어 “태아와 출생한 사람은 생명의 연속적인 발달과정 아래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의 정도나 생명 보호의 필요성과 관련해 태아와 출생한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출생 전의 생중 인 생명을 헌법상 생명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생명권의 보호는 불완전한 것에 그치고 말 것이므로, 태아 역시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또 “태아가 모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임신한 여성에게 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소멸시킬 권리, 즉 낙태할 권리가 자기 결정권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를 금지할 수 있다.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는 임신한 여성의 태아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태아의 생명 보호는 매우 중대하고 절실한 공익”이라며 “생명권은 그 특성상 일부 제한을 상정할 수 없고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곧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며, 낙태된 태아는 생명이 될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된다”고 했다.

“저는 절대로 낙태시술을 할 수 없습니다”

낙태 합법화, 이제 저는 산부인과 의사를 그만둬야 하는 것인지...ㅠ

참여인원 : [17,248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사자 2019-04-12 청원마감 2019-05-12 청원인 kakao -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산부인과 의사로서 저에게 낙태 시술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로 그 시술을 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다음 날인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낙태 합법화, 이제 저는 산부인과 의사를 그만둬야 하는 것인지...’라는 제목의 청원 내용 중 일부다.

“낙태 합법화 소식을 듣고 그동안 소신껏 걸어온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이제 접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저는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접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생명의 신비에 감동해 산부인과를 선택하고 싶은 후배들은 낙태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포기해야 할 것이며 독실한 카톨릭이나 기독교 신자의 경우 종교적 양심으로 인해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선택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글을 맺으며 “낙태 합법화가 되더라도 원하지 않는 의사는 낙태 시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진료 거부권을 반드시 같이 주시기를, 그래서 낙태로 인해 진료 현장을 반강제적으로 떠나야 하는 의사가 없게 해주시기를” 청원했다. 15일 오전 8시 24분 현재 이 청원에 동의한 수는 17,198명이다.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CC Academy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00 EM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일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양연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0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Awar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845-5431 F.(818)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절연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P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천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벨리채플 Valley Chapel MP채플 최희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8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 (818)383-5887 Tel. (323) 837-09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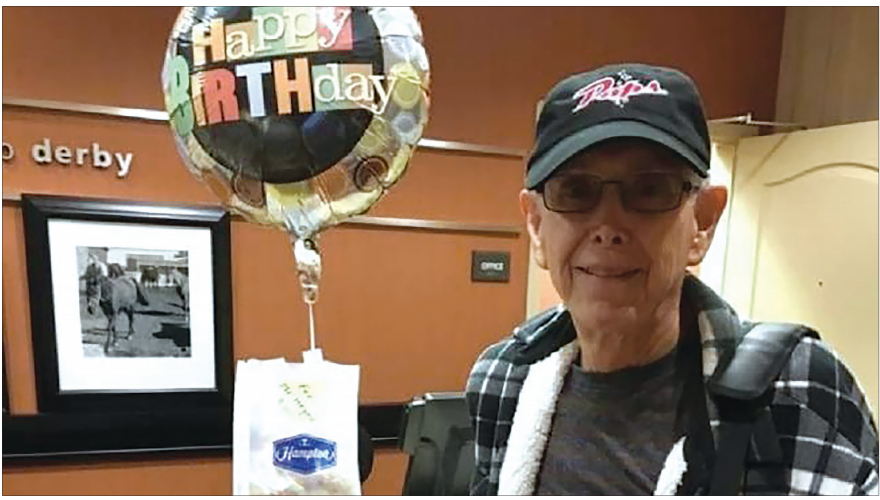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월터 헤이어씨의 모습. ©페이스북

“우리가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있다” 탈성전환자의 고백

성전환수술을 받았다가 이를 후회하게 된 한 남성이 “우리가 아이들을 의학적으로 트랜스젠더로 만들면서 학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모임에 패널로 참석한 월터 헤이어(Walt Heyer) 씨는 “성전환 수술을 한 아이들이나 부모들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많이 받고 있다”면서 “나처럼 성전환수술을 받고 5, 6, 15, 18, 20년 심지어 30년 이상 살아온 이들이 ‘성을 다시 되돌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는 삶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헤이어 씨 역시 지난 8년 동안 로라라는 이름의 여성으로 살아왔다. 1983년 성전환수술을 받은 그는 현재 자신이 경험했던 심리적 학대와 신체적 불편함에 대해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으며, 의료 기관에서는 수 천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위험한 호르몬 치료와 성전환 수술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헤이어 씨는 성전환 수술로 인한 트라우마의 결과 술을 많이 마시게 됐고, 고통을 억누르기 위해 코카인까지 사용하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지난 10여 년 동안 성을 다시 돌이키고 싶어하는 이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성적으로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역시 9살 때 삼촌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지만, 부모님은 거짓말을 한다며 믿지 않았고, 이는 성별에 대한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Sex Change Regret’이라는 단체를 설립해 성전환 치료와 약물에 반대하는 운동을 진행 중이다. 그동안 학교의 교사들, 약사들, 그의 친구인 제이미 슈프 등을 도왔다. 제이미 슈프는 미국에서 법적으로 ‘간성’ 임을 인정받은 최초의 인물이다.

헤이어 씨는 “할머니가 내게 자주씩 쉬폰 드레스를 입힌 뒤,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말과 행동

이 나를 혼란에 빠뜨렸다”면서 “아이들에게 이러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선 안된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뭔가 안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동 학대이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스스로에 대해 우울감과 분노를 느끼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헤이어 씨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46년 동안 이 문제를 연구한 뒤, 1990년 성을 다시 돌이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 심리치료를 받았다. 동성애 활동가들이 그렇게 막는 심리치료를 받은 것이다. 그들은 왜 심리치료를 받지 못하게 할까? 성을 다시 돌이키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사는 이들에게 ‘도와달라’는 메일을 받는 일은 매우 고통스럽다. 그런데 트랜스젠더 아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다. 우리가 그들의 우울증과 분노를 만들고 있다. 아이들이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살게 된 후에는 이로부터 이익을 챙기는 등 거대한 사업으로까지 변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이제는 이것에 대해 말하기 시작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누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아이들인지 모른다. 과학자들은 누가 트랜스젠더이고 누가 트랜스젠더가 아닌지에 관한 결정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 당장은 이를 아는가? 그들은 자신들의 말 외에는 누가 트랜스젠더 아동인지 실제로 정의를 내리지 못한다. 실험도 없고 증거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심지어 미국심리학회조차 그들의 핸드북에 ‘아이들은 트랜스젠더로 태어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런 것처럼 아이들에게 의학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바꾸려고 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트랜스젠더 아이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사탄은 성경적인 남성성을 지우고 있다”



토니 에반스 목사. ©아이콘 미디어 그룹

“사탄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파괴하며, 인간에 대한 성경의 정의를 다시 정하려고 작정했다. 왜냐하면 사탄은 가정이 흐트러지고 사회가 붕괴되는 것을 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댈러스 오크클리프성경협회(Oak Cliff Bible Fellowship) 설립자이자 담임목사인 토니 에반스(Tony Evans) 목사는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크리스천포스트와 인터뷰를 갖고 이렇게 말했다.

인터뷰에서 에반스 목사는 “우리는 현재 가족의 해체를 목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정과 사회를 흐트러뜨리길 원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남성들의 역할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반스 목사는 “모세 때와 예수님 당시, (사탄은)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통제하기 위해 모든 남자 아이를 죽였다”면서 “우리의 대적은 현재 심리적·감정적·기능적으로 남자를 없애려고 한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회에서, 거의 70%의 아이들이 미혼모에게서 태어나며, 이는 대다수의 아이들이 삶에서 아버지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못한 채 자란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공동체로서 재앙의 끝에서 있는 것이다. 여성들이 대단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창조 때 주어진 여성의 몫보다 훨씬 많은 일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결혼과 가족에 대한 올바른 견해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그것은 인간에 대한 올바른 견해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사우스베이, 토렌스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치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신대섭 담임목사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아침찬양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 샬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하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30 이호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3부월일예배 오후 1:30
이름없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령대방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람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냄으로 오영애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9:00 윤 목 담임목사
주일2부 오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1부), 6:30(2부)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믿음이 섰도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s, CA 90274
T. (310)715-9902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성경통독모임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초등부 오전 11:00 Youth/College 오전 11:00

이명익 담임목사

UBM교회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연합하는 교회

151 E.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Tel: 714-336-8995 www.ubm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2:20 민승기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찬양부 오전 9:30, 11:30
한아침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한국어) 오전 11:00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오후 1:30 한국화(과목)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나침반교회

다시 복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 초, 중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거주예배 매일 4째주 주일 오후 5:30
대학찬양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게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백정주 담임목사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M)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 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이일 담임목사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남가주 순복음교회

예수 영으로 열매를 맺는 복음공동체. ALL IN JESUS 복수적 모든 것을 가는 예수공동체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1: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 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령으로 세움 받아 함께 갈라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9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988-3321, (562) 896-1665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행복한 동행!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00 (영어예배)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 (젊은이예배)

고현중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공동체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 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찬양예배 오후 7시(수) 재지상서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전 9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토)

람학훈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예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오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어, 유아,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전 12:3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 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짐새를 써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사랑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인터넷 생방송예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1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2부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영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 549-0121 www.myco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끄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c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경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사랑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최성철 담임목사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영어 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668
T. (714) 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6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o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탈동성애자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자녀라는 것”

최근 ‘거룩한 성과 복음’ 펴내



크리스토퍼 원씨가 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 ©WaterBrook & Multnomah

탈동성애자이면서 신학 교수인 크리스토퍼 원(Christopher Yuan) 씨가 최근 ‘거룩한 성과 복음’(Holy Sexuality and the Gospel: Sex, Desire, and Relationships Shaped by God’s Grand Story)이라는 책을 펴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그는 “우리 문화는 성적 욕망에 관해 말할 때 ‘나는 ~을 느낀다’는 동사보다 ‘나는 ~다’라는 동사를 사용하도록 우리를 훈련한다. 그들은 ‘내가 동성애적인 유혹을 느낀다면, 나는 동성애자이다’라고 말한다”고 했다.

몇 년 동안, 원 씨는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자처하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어진 삶을 살았다고 한다. 그는 교직원에게 마약을 팔다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기 전 학교를 그만두게 되기도 했다. 또 게이바에 출입하며 마약 거래상으로 살면서 기독교인이었던 부모님과도 멀어지게 됐다.

그는 결국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이곳에서 HIV 양성반응이라는 소식까지 듣게 된다. 그러던 중 원씨의 아버지는 그에게 성경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런데 어느 순간 쓰레기통을 바라보며 ‘쓰레기통이 마치 내 삶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한다. 문득 쓰레기통 위에 놓인 성경을 발견했고, 그것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엔 지루했으나 갈수록 흥미로웠다고 한다.

성경과 씨름하며 성경의 말씀을 자신의 성적 정체성과 접목해보려고 노력했던 그는 결국 갈림길에 닿았다. 성적 지향을 따라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고 살든지 둘 중 하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죄수에서 성경교사에 이르기까지 전혀 닳지 않은 삶을 살았던 원씨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에 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예를 들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경험에 의해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개종을 했고 해서 (동성애) 유혹이 끝난 것은 아니다. 바울 사도가 ‘욕신’이라고 표현한 것과의 싸움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우리의 성적 정체성도 그러하다”고 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그는 자신을 한번 더 돌아보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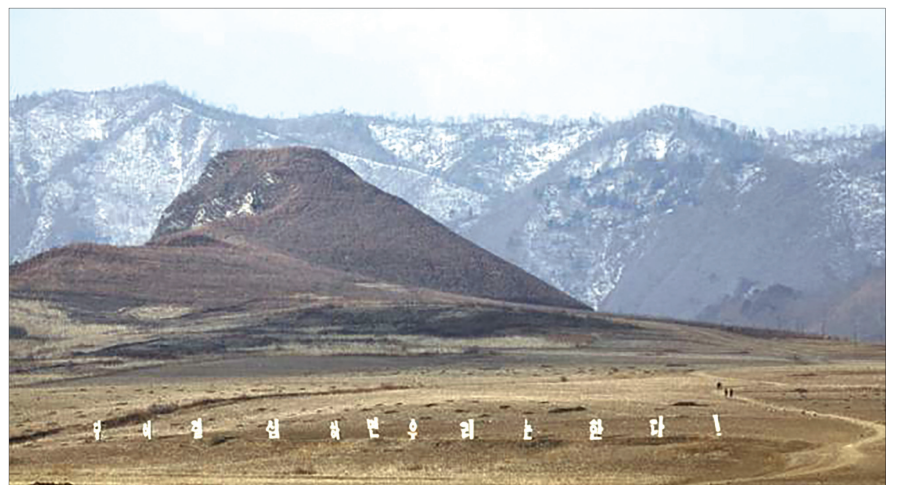
그는 “동성애를 둘러싼 주제들은 ‘성’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욕구를 갖고 있는가?’ ‘결혼의 목적은 무엇인가?’ 등과 같이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더 큰 질문들로 둘러싸여 있다. 우리의 세계관은 우리의 삶의 형태를 빛낸다”고 말했다. 그는 성경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할 뿐 아니라, ‘성을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조건없는 사랑은 조건 없는 허락을 의미한다’ ‘난 모든 욕망들이 합쳐진 결과이다’ 등 우리 문화에 스며든 말들이 거짓이라는 사실도 드러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는 “나의 정체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성애의 유혹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가족들을 향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는 “먼저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아들, 딸, 형제, 친구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당신과 그들은 함께 걷고, 사랑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과 함께 기도할 것임을 알게 해주어라”고 말했다.

강해진 기자

“北, 공포정치 재개 ‘미신행위’ 이유로 공개총살형”

자유아시아방송 보도 “주민들, 미래에 대해 불안”



북한 혜산 인근 벌판에 세워진 격문

북한이 대도시 중심가에서 공개총살형을 단행해 공포정치를 재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0일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올해 들어 공개재판과 공개총살형이 다시 시작됐다”며 “사법당국이 사회질서 유지라는 명분을 앞세워 여러 곳에서 공개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당국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함경북도 청진시 중심가에서 2~3월 연이어 공개재판이 벌어져 주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면서 “특히 3월에 벌어진 공개재판에는 청진시의 공장기업소, 대학, 인민반 주민 수만 명이 조직적으로 집결시켜 공개처형을 참관하게 하고, 사형판결 후 즉시 공개총살형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남구역 장마당 인근에서 열린 대규모 공개재판에 처해진 3명의 죄명은 ‘미신행위’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여성들로 2명은 총살형, 1명은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이들은 어린이들을 이용해 돈을 받고 점을 봐주는 등 조직적으로 미신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소식통은 “중앙에서 거듭 비사회주의의 척결과 사회질서확립을 강조하지만, 그 지시에 따르는 주민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법대로 살다가 굶어 죽기 딱 좋다는 의식이 주민들 속에 팽배해 불법은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는 “주민들 속에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미신행위가 널리 확산되자 사법당국이 다시 공개재판을 벌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당 간부 가족들조차 미래 불안으로 점쟁이에 매달리는 형국이 되자 미신행위로 돈을 버는 점쟁이들을 본보기로 공개처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입자 암치료의 대표 조규면 박사 초청 암 치료 및 예방법 세미나

암은 반드시 정복됩니다!!!

암 환자에게 희망이 되는 중입자 치료란 무엇인가?

입자치료를 중심으로 광역자치료와 면역세포치료를 병행하여 중증 암환자나 희귀암 환자를 치료합니다. 입자치료는 혈액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대상으로 치료합니다. 그러나 혈액암도 면역체계복구치료법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초기(1기)~4기(일부 전이된 암환자) 그리고 심지어 의료기관에서 치료 대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한 암환자까지 치료합니다.



조 규 면 박사 Ph.D.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Korea Particle Therapy Cancer Center
Chairman & CEO / 펄프암즈 제품 개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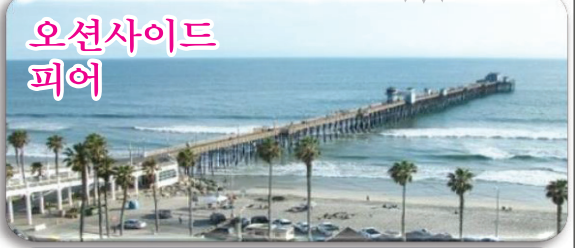
- 일 시 : 1차 2019년 4월 28일(주일) 오후 12:45~2:00
2차 2019년 4월 29일(월) 오전 10:00~12:00
- 장 소 : 마가교회 (181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참가비 : \$20 (좌석관계로 예약하신 분만 참석 가능합니다)
참가비 내시면 판매가 \$30 함초분말(250g)을 선물로 드립니다.
- 주 최 : 한국 중입자 암치료 센터, 기독일보
- 주 관 : hempbiousa.com
- 문 의 : 기독일보 T.(213)739-0403, (213)605-2772, 최형철 장로 (626)786-1814

여 러 분 을 초 대 합 니 다

기독일보 “6월 썸머스페셜” 추억여행

“포인트 로마”와 “코로라도 섬” & 기차여행

지명	시간	2019년 6월 8일 토요일 일정표	비고
기독일보	08:00	기독일보 집결 (3020 Wilshire Blvd, #160)	
유니온 역	08:30	유니온 역 도착 후 승차 수속	대형 고급 버스
	08:40	기차 탑승 [태평양 연안 기차 여행] 출발	
오션사이드	10:52	오션사이드 도착 후 렉시 뷔페 중식	
포인트로마	13:30	포인트로마로 이동 및 도착 후 [추억 여행] 주어진 미션 수행 [사진 촬영]	기차 여행
샌디에고	14:30	샌디에고로 이동 및 도착 [항만 관광]	
	15:00	[페리 탑승] 코로라도 섬으로 이동	중식: 렉시 뷔페
코로라도 섬	16:15	호텔 델 콜로라도 [추억 여행] 후 L.A.로 출발	
기독일보	18:30	기독일보 도착 및 해산 /안녕히 가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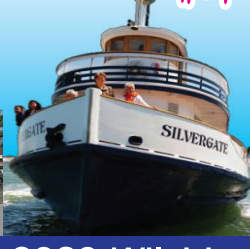


포함 사항 - 대형 버스, 중식(렉시 일식 뷔페), 기차(L.A. Union to Oceanside), 포인트로마 입장료, 페리 탑승 요금 등.
불 포함 사항 - 모든 팁(버스 기사, 관광 가이드 등) 및 여행보험

호텔 델 콜로라도



페리



포인트로마 등대



Tel. (213)739-0403, (213)434-1170 / 3020 Wilshire Blvd. #160, LA, CA 90010 / chdailya@gmail.com

2019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 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영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402A,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mc@aeu.edu, adm@master@gmail.co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권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종교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공미로고
마그네틱 텀블러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 찬양 사역자 구함
■ 기타 연주하시는 분
■ 드럼 연주하시는 분
■ 바이올린 연주하시는 분
■ 기타 악기 연주하실 수 있는 분

문의 : (213)408-5819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문의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Scott Kim Studio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담아 드립니다.
10년 후 펼쳐봐도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Scott Kim Studio가 함께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진을 남기세요)

■ 교회 출장 사진 전문
■ 영정 사진
■ 가족 사진
■ 입관·하관 예배
■ 부동산 홍보

결혼 사진, 제품 사진
회사 이벤트, 인물 사진

213-810-4000 scottkimstudio@gmail.com
Kakao talk ID: scottkimstudio

목소리 재능 기부
현재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우 스캇 김입니다.
교회에서 성우 같은 전문적인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LA 인근 지역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으니 연락주세요.

THC Free 환각기능없음

Dietary Supplement

대마햄프함초환

대마 추출 건강기능식품
SUPERFOOD PROMISE

신이 내린 항암식물
대마 함초환
Cannabinoids
대마추출물 Hemp Oil

암 전이를 예방해주며
혈관을 튼튼하게,
면역력을 증강시켜줍니다.

예고 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중, 중풍,
심장병, 치매 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 많은 질병에 사용되는 유망한 천연치료제입니다.
※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칸나비노이드를 자리에
영양을 흡수하여 알, 뇌건, 체중, 노화방지
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GLA는 미국임상회가 강
력 추천하는 항암 식품입니다.
※ 대마식물에서 추출된 CBD는 중독성이 없으며
환각성을 유발하는 THC 성분은 없습니다.
※ 만성통증, 불안 등 다양한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로 건강과 웰빙세계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 대마씨 햄프초환은 미국 타일에서 수확된
선명

암 전이를 예방해주며
혈관을 튼튼하게,
면역력을 증강시켜줍니다.

예고 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중, 중풍,
심장병, 치매 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조규면 박사 Ph.D.
한국중입암치료센터
Korea Particle Therapy Cancer Center
Chairman & CEO / 1000명 이상 환자 치료 경험자

\$250+tax

MANUFACTURED IN THE USA

“예수 부활하셨네”

주일 대예배

예배 모임

1부
오전 7:30
본당

2부
오전 9:30
본당

3부 (열린예배)
오전 11:45
본당

4부 (조용기 목사 영상예배)
오후 1:30
권사회실

새벽예배 월 - 토 오전 5:30 / 본당
 수요일예배 수요일 오후 7:30 / 본당
 금요일예배 금요일 오후 7:30 / 본당

영아부 예배 (0-2세) 주일 오전 9:30, 11:30 / 본당 영아부실
 유치부 예배 (3-5세) 주일 오전 09:30, 11:30 / 신 교육관 유치부실
 유년부 예배 (1-5학년) 주일 오전 09:30(영어), 11:45(한국어) / 구 교육관
 금요일 오후 7:30 / 구 교육관 (AWANA)

WG 영어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09:30, 금요일 오후 7:30 / 신 교육관 영어중고등부실
 JVT 한어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1:30, 금요일 오후 7:30 / 신 교육관 한어중고등부실
 MIG 한어청년부 예배 주일 오전 11:45 (3부 예배) / 본당
 EM 예배 주일 오전 11:30 / 신 교육관 3층 EM 예배실
 EM CAM(영어대학부) 주일 오전 11:30 / 신 교육관 3층 EM 예배실, 토요일 19:00
 실버드림대학 목요일 오전 9:00 / 구, 신 교육관
 토요일학교 토요일 오전 09:30 / 구 교육관

나서순복음교회
LAFGC LA FULL GOSPEL CHURCH

담임목사 : 진유철 Senior Pastor Rev. Yu Chul Chin
 주소 :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4102

Tel 323 - 913 - 4499
 Fax 323 - 913 - 4494
 www.lafgc.com
 lafgcusa@yahoo.com

www.ChurchEveryday.org

예수 부활하셨네!

에브리데이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Office: 818-832-6628
 Fax: 818-368-0089
 info@ChurchEveryday.org

Worship Hours

Sunday 주일예배
 8:00am - 1부
 9:30am - 2부 / 교육부
 11:00am - 3부 / 교육부 / 향기마을
 1:00pm - 4부 (청년부)

English Ministry (영어예배)
 9:30am / 11:00am Sunday
 (교육관 Education Center)

Wednesday 수요일
 7:30pm - 수요기도회 / Awana (Kidz Church)

Mon~Sat 월요일~토요일
 5:30am - 새벽기도회

“축부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사/명/선/언
 복음을 신실하게 믿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사랑으로 불신자를 불러 양육하는
 예배공동체로서 세상을 향하여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한다.

“예수를 본받는 교회, 믿는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 믿음이 소문난 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예배시간 안내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choonghyun.org

충현선교교회

주소 및 전화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미주투어 2019 유관순과 그녀들의 조국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식 후원작



유관순 열사

“주님, 용서하되 잊지 않게 하소서”

1919년 3월 1일 시작된 만세운동의 중심에는 개신교 선교사들에게 기독교교육을 받은 소녀들이 있었다. 이화학당, 배화학당 그리고 개성의 호수돈 여학교까지. 기독교정신으로 시대에 저항한 유관순과 8호 감방의 여성 독립투사들 100년 전 그날, 그녀들의 함성이 한국교회에 전달된다!



추천사

- **이영훈 목사** _ 여의도 순복음 교회
제임리 교회에서 일본에 의해 불에 타 죽으면서도 찬송을 부르며 신앙을 지켰다. 3.1운동 정신이 남과 북이 함께 하는 청년이 함께 하는 민족 화합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 **김운성 목사** _ 영락 교회
충격적이다!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이었던, 백 년 전 그분들의 기도, 지금 청년들에게 알려야 한다!
- **송기성 목사** _ 정동제일 감리교회
교회가 청년 목양의 중심 이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 한 청년에게 생명을 건 목회를 해야 한다!
- **김학중 목사** _ 꿈의 교회
백 년 전 시대의 양심은 교회였고, 3.1운동은 기독교인의 순교로 만들어낸 사명이다.
- **김은호 목사** _ 오륜 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질 청년들이 반드시 봐야 될 영화이다! 기대하고 기도 한다!
- **강정식 목사** _ 새성남 교회
유관순 열사와 8번방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기도를 기억해야 한다! 땅이 꺼져라, 목이 터져라 외치었던 그분들의 기도를 기억하자!
- **이제훈 목사** _ 온누리 교회
목사청년들이 반드시 봐야 될 영화이다.
- **고명진 목사** _ 수원중앙 침례 교회
문화가 시대의 도구이다. 기독교인이라면 꼭 봐야 한다!
- **천기원 목사** _ 두리 하나
함께 보던 탈북 청소년들의 울음이 영화 보는 내내 그치지 않았다.
- **임현수 목사** _ 캐나다
영화를 통해 800만 디아스포라와 통일 조국을 꿈꾼다.
- **김성로 목사** _ 춘천한 마음
유관순 열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다!

관람일시

5월 17일(금) ~ 18일(토) 오후 7:00 - 라스베가스청년연합집회
 5월 19일(일) 오후 2:00 - LA웨스트힐장로교회 전교인영화상영
 5월 23일(목) 오후 7:00 - SF산호세선교집회(오전 9:00~오후 5:00)
 5월 24일(금) 오후 7:00 - 남가주은혜한인교회
 5월 25일(토) 오전 6:00 - 엘에이사랑의교회
 오전 7:00 - 미주비전교회

주최: Gibson Brothers Mission World 후원: 기독교일보 문의: T.(425)775-7477